

한 세대에 한 권 나올까말까한 중요한 작품집.

—The Magazine of Fantasy and Science Fiction

테드 창 의 모든 작품은 지극히 높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소설의 내적 구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기하는 사회적, 실존적인 파급 효과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고찰하기 때문이다. 과학소설에서 '과학' 을 부활시킨 탁월한 작가이다.

—Booklist

테드 창은 멋지고, 경이로우며, 믿기 힘든 정도의 재기(才氣)를 가진 작가이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는 현재 쓰여지는 소설들 중에서도 최상급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실려 있다. 나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과학소설을 읽는다.

—Michael Swanwick, 작가, 『Stations of the Tide』

필독서이다. 테드 창을 읽지 않는다면 현대 과학소설을 논할 자격이 없다.

—Greg Bear, 작가, 『Blood Music』

테드 창처럼 장편을 단 한 권도 쓰지 않고서도 중단편만으로 뛰어난 명성을 쌓아 올린 예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작품은 창의성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정교한 사색으로 독자를 매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Ellen Datlow, 작가, 편집자, 『The Year's Best Fantasy and Horror』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 테드 창을 처음 읽는 독자는 경악할 것이다.

—James Patrick Kelly, 작가, 『Solstice』

탁월한 상상력을 가진 서정적인 작가. 「바벨론의 탑」 같은 단편은 실로 경이롭다 고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작품집이다.

—Jack Dann, 작가, 편집자, 『Nebula Awards Showcase 2005』

테드 창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가 작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그의 단편집 출간은 실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Octavia E. Butler, 작가, 『Parable of the Sower』

당신 인생의 이야기

네 인생의 이야기

Story of Your Life

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려 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 두려고 하고 있지. 네 아버지와 나는 밖에서 디너 쇼를 관람하고 방금 돌아온 참이란다. 시간은 자정을 넘었고, 우리는 보름달을 보려고 파티오에 나와 있어. 춤을 추고 싶다고 네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이는 꽤히 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어. 달빛 아래에서, 삼십대의 남녀가 십대들처럼 몸을 밀착시키고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말야.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윽고 네 아빠는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

네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2년쯤 된 부부이고, 지금은 엘리스 애비뉴에 살고 있어. 이사를 갈 무렵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집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네게 사진을 보여 주고 옛날 얘기를 해 줄 거야. 오늘밤, 너를 잉태했던 이 밤 얘기를 너에게 해 주고 싶은 마음

은 간절하지만, 그러기에 적절한 시기는 네가 네 자신의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을 때이고, 결국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얘기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너는 네 인생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로맨틱한—너라면 감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지—애기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말야. 나는 네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네가 말하는 너의 탄생 시나리오를 기억해.

“엄마가 나를 낳은 이유는 단 하나, 월급 안 쥐도 되는 하녀를 들이기 위해서야.”

벽장에서 진공청소기를 끄집어내면서 너는 쓰디쓴 어조로 이렇게 말하겠지.

“맞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13년 전 난 지금쯤 카펫을 청소할 필요가 생길 거라는 걸 깨달았고, 제일 싸고 쉬운 방법이 애를 낳는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하렴.”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건 불법이었을 텐데.”

너는 부글부글 끓는 듯한 표정으로 전깃줄을 끌어내서 벽의 콘센트에 꽂으면서 이렇게 말해.

그건 우리가 벨몬트가의 집에 살았을 때의 일이겠지. 살아가면서 나는 양쪽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를 가졌던 집과 네가 자라났던 집들에. 네 아빠와 나는 네가 태어난 지 2년 후에 첫 번째 집을 팔아. 나는 두 번째 집을 네가 떠난 직후에 팔지. 그 무렵이면 넬슨과 나는 그 농가로 이사하고, 네 아빠는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그 여자와 살고 있겠지.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고, 그에 관해 자주 생각해 보곤 해. 또 불과 몇 년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지구 궤도상에 우주선들이 느닷없이

출현하고, 목초지에 인공물(人工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의 일을. 정부가 이 현상에 관해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싸구려 신문들은 모든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지.

그때 전화가 울렸고, 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야.

내 사무실 밖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한 사람은 짧은 머리에 군복 차림이었고, 알루미늄제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다. 냉철한 눈초리로 주위 환경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한 사람은 한 눈에 학자임을 알 수 있었다.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르고, 코듀로이 옷차림이었다. 옆의 게시판에 스테이플러로 붙여 놓은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웨버 대령님이시죠?” 나는 군인과 악수를 나눴다. “루이즈 뱅크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뱅크스 박사님.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이 말했다.

“천만에요. 무슨 핑계이든 교수 회의에만 안 나가도 된다면 대환영입니다.”

웨버 대령은 동행한 남자 쪽을 가리켰다.

“이쪽은 게리 도널리 박사입니다. 전화에서 제가 얘기하던 물리학자입니다.”

“게리라고 불러 주십시오.” 물리학자는 나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의견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하군요.”

모두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내가 두 번째의 손님용 의자 위에 쌓아 둔 책들을 치운 다음, 모두 자리에 앉았다.

“녹음 테이프를 들어 봐 달라고 하셨죠. 아마 외계인들과 관련된 것인가 보군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녹음 테이프뿐입니다.”

웨버 대령이 말했다.

“알았어요. 들어 보죠.”

웨버 대령은 서류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물을 뒤집어쓴 개가 몸을 후드득 하고 흔들려 털가죽에서 물을 떨궈내는 소리를 엇비슷하게 연상시켰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대령이 물었다.

물을 뒤집어쓴 개가 내는 소리에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이 소리는 어떤 상황에서 녹음되었나요?”

“그걸 말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 소리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외계인이 말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외계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녹음뿐입니다.”

“외계인들을 보았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앓을 건 없지 않아요. 일반 대중은 당신들이 이미 그들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웨버 대령은 물려서려 하지 않았다. “그 소리의 언어학적 특성에 관해서 뭔가 깨달은 점이 있으신지요?”

“흠. 그들의 성대가 인간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군요. 그 외계인들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네요?”

대령이 뭔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 게리 도넬리가 끼어들었다.

“그 테이프에 입각해서 뭔가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까?”

“힘들어요. 그들이 후두(喉頭)를 써서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는 없군

요.”

“무엇이든 ——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웨버 대령이 물었다.

그가 민간인의 조언을 얻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해부학적인 차이 탓에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일 자체가 극히 힘들 거라는 사실밖에는 얘기할 수 없군요. 그들이 인간의 성대가 만들어 낼 수 없는 소리를 쓰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 그 소리는 인간의 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건지도 모르니.”

“초저주파나 초음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게리 도넬리가 물었다.

“꼭 그렇다는 뜻은 아녜요. 단지 인간의 청각 시스템은 완벽한 음향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후두가 내는 소리를 인식하는 데 최적화된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외계인의 발성 기관의 경우에는 추측은 별 의미가 없죠.”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우리도 외계인어의 음소(音素)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의 귀로는 그들이 의미가 있다고 간주하는 차이를 아예 식별하지도 못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외계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위해서는 음향분석기가 필요해질 겁니다.”

웨버 대령이 말했다. “만약 제가 박사님께 한 시간 분량의 녹음 테이프를 드린다면, 그 음향분석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녹음된 소리만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외계인들과 직접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급적 완곡하게 설득을 시도했다.

“물론 그것이 대령님의 직무겠죠. 하지만 미지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직접 교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교류라는 건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 따위를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언어 습득은 절대 불가능해요. 따라서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언어학 분야에서 훈련을 쌓은 사람이—이를테면 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학자가—직접 외계인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녹음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웨버 대령은 미간을 찡그렸다. “외계인들이 우리의 방송을 방청해서 인류의 언어를 습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非)인류에게 인류의 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학습 교재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과 직접 교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주어진다면 그들도 TV 따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출발점에도 서지 못할 겁니다.”

대령은 나의 이 말에 큰 흥미를 느낀 듯했다. 외계인들은 우리에게 관해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는 것이 그의 관점임이 명백했다. 게리 도널리도 대령의 표정에서 그 사실을 읽었는지 눈을 굴리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음이 떠오르려는 것을 억눌렀다.

이윽고 웨버 대령이 물었다. “해당 언어를 말하는 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얼마나 협력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것 저것을 알게 되리라

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이쪽에 가르쳐 줄 의지가 있다면 그쪽에서 이쪽 말에 관해 배우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 영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은 아마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대한 전화 통화였는지도 모르겠구나. 첫 번째로 중대한 것은 물론 산악 구조대에게서 받은 전화였지. 그 시점에서 네 아빠와 나는 아마 1년에 많아야 한 번쯤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어 있지.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처음에 한 일은 네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

그이와 나는 함께 차를 타고 신원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가는, 길고 침묵으로 가득 찬 드라이브를 하게 되겠지. 나는 타일과 스테인리스강으로만 이루어진 듯한 시체 안치소를 기억해. 냉동 장치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방부제 냄새도. 안치소 직원이 시트를 걷어 네 얼굴을 보여줬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네 얼굴이라는 걸 나는 알아.

“예, 맞습니다.” 나는 말하겠지. “제 딸입니다.”

그때 네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야.

헌병은 내 가슴의 배지를 확인하고 회람판의 서류에 뭔가를 기입한 다음 게이트를 열어 주었다. 나는 오프로드 차를 몰고 캠프 안으로 들어갔다. 벌에 바싹 마른 농장 목초지에 육군의 천막이 잔뜩 들어서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이 캠프 한복판에는 체경(looking glass)이라는 별명이 붙은 외계인의 기계 장치가 자리 잡고 있다.

사전 브리핑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는 이런 체경이 9

개, 전 세계에는 112개가 있다고 한다. 체경들은 쌍방향 통신 장치로 작동하며, 아마 궤도상의 우주선들과의 연락에 쓰이는 듯했다. 외계인들이 우리와 직접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가 옳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리학자와 언어학자 한 사람씩을 포함한 과학자 팀이 각 체경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었다. 이 캠프의 팀에는 게리 도널리와 내가 포함되어 있다.

게리는 주차 지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콘크리트 장애물들로 이루어진 원형의 미로를 지나서 체경 본체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천막에 도달했다. 천막 앞에는 대학의 음향학 연구실에서 빌려온 물건들이 가득 실린 장비 운반용 카트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육군이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내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보낸 것이다.

천막 밖에는 천막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삼각대에 거치된 비디오 카메라들도 세 대 놓여 있었다. 지금부터 게리와 내가 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시 검토될 것이다. 군 정보부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매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내 경우는 외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이해하는지에 관한 추정도 포함시켜야 했다.

게리는 텐트 입구의 천을 옆으로 걷고 나더러 먼저 들어가라는 시늉을 했다.

“자아, 어서 들어갑쇼, 손님.” 게리는 서커스 호객꾼 같은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푸른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던 괴물들을 보면 놀라 자빠지실 겁니다.”

“그것도 단돈 10센트에 말이죠.”

나는 입구를 지나며 중얼거렸다. 현재 체경은 비활성 상태였고, 높이 10피트, 너비 12피트의 반원형 거울처럼 보였다. 체경 앞쪽의 갈색

폴발에 흰 페인트로 분무해 놓은 호(弧)는 체경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작동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이 영역 안에는 탁자 하나, 접이식 의자 둘, 그리고 외부 발전기와 전선으로 연결된 멀티탭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다. 천막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된 기둥들에 매달린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켜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들의 붕붕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들려온다.

게리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기계 장치가 실린 카트를 함께 밀고 탁자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페인트로 표시된 선을 넘자 체경은 점점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색유리 뒤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조명의 광도를 높이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체경 자체에 생겨난 3차원적인 깊이는 섬뜩할 정도로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될 듯한 느낌이었다. 완전히 밝아진 체경은 반원형 방의 실물 크기 모형처럼 보인다. 이 방에는 가구일지도 모르는 커다란 물체가 몇 개 놓여 있었지만, 외계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만곡한 뒤쪽 벽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게리와 나는 서둘러 모든 장치를 연결했다. 마이크, 음향분석기, 휴대용 컴퓨터, 스피커 따위를. 작업을 하면서 나는 외계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체경 쪽을 흘깃흘깃 쳐다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그것은 일곱 개의 가지가 맞닿는 곳에 올려놓은 통처럼 보였다. 방사상(狀)으로 대칭이었고, 가지는 모두 팔이나 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네 다리를 써서 걷고 있었고, 다른 세 개는 팔처럼 측면에 말려 올린 상태였다. 게리는 이들을 ‘헵타포드*’라고 불렀다.

heptapods, 칠족(七足) 생물이라는 뜻.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본 적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망연 자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의 수족에서 관절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해부학자들은 이것들이 척추 모양을 한 기둥으로 지지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어떤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든 간에, 헵타포드의 수족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물결치는 수족 위에 올라탄 그 '몸통'은 호버크라프트(hovercraft)처럼 매끄럽게 이동한다.

눈꺼풀이 없는 일곱 개의 눈이 헵타포드의 몸통 꼭대기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은 방금 들어온 문간을 향해 돌아가더니 짧게 푹푹하는 소리를 냈고, 다른 헵타포드를 데리고 다시 방 중앙으로 되돌아왔다. 이러면서도 한 번도 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기괴하기는 하지만 논리적이다. 모든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방향도 '전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리는 내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충분해."

현지 조사라면 아마존 유역에서 실컷 해 보았지만, 이것은 언제나 두 언어를 병용하는 식의 조사였다. 정보 제공자들이 어느 정도 포르투갈어를 하는 경우 나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고, 혹은 현지의 선교사들과 미리 접촉해서 해당 언어에 관한 초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진정한 단일 언어 습득 절차가 될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간단한 절차이지만 말이다.

내가 체경을 향해 걸어가자 반대편의 헵타포드도 같은 행동을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짜 같았던 탓에 피부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소용돌이나 고리 모양의 돌출부늬가 있는 코듀로이 천을 연상시

키는 상대의 잿빛 피부의 질감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체경 쪽에서는 아무 냄새도 풍겨 오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은 어떤 이유에선가 이 상황을 한층 더 기묘한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천천히 말했다. "인간." 그러고는 게리를 가리켰다. "인간." 그런 다음 각각의 헵타포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반응은 없었다. 나는 같은 일을 반복했고, 한 번 더 반복했다.

헵타포드 하나가 칠지(七肢) 중 하나를 써서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 그 끝에는 네 개의 손가락들이 붙어 있었다. 운이 좋았다. 어떤 문화에서는 사람을 가리킬 때 턱을 쓴다. 헵타포드가 칠지 중 하나를 쓰지 않았다면 어떤 제스처에 주목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짧게 퍼덕거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동체 꼭대기의 오므라진 구멍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헵타포드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것은 자기 동료를 가리키고는 다시 퍼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들린 퍼덕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두 개의 음향 패턴이 나타나 있었고,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했다. 나중에 재생하기 위해 샘플 하나를 골라 표시를 했다. 나는 나를 가리키며 다시 "인간"이라고 말했고, 게리를 가리키며 같은 말을 했다. 그런 다음 나는 헵타포드를 가리켰고, 스피커를 통해 퍼덕거리는 소리를 재생했다.

처음에 말을 한 헵타포드는 또다시 퍼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음향 분석기에 떠오른 패턴의 후반부는 반복인 듯했다. 가장 처음의 발화(發話)들을 [퍼덕거림1], 이번 것을 [퍼덕거림2 - 퍼덕거림1]이라고 부르기 하자.

나는 헵타포드의 의자일지도 모르는 물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헵타포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의자’를 가리키며 또 뭐라고 말했다. 이 소리의 음향 패턴은 처음에 들었던 소리들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퍼덕거림3]이다. 나는 [퍼덕거림3]을 재생하며 또다시 ‘의자’를 가리켰다.

헵타포드가 대답했다. 음향분석기에 의하면 [퍼덕거림3]—퍼덕거림2처럼 보였다. 낙관적 해석: 헵타포드는 내 발음이 정확하다고 확인해주었고, 이것은 헵타포드와 인류의 대화 패턴이 호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비관적 해석: 아까부터 자꾸 기침이 멎지 않는 모양이다.

내 컴퓨터를 가지고 음향 분석 결과를 특정 섹션들로 갈라 놓고, 각 섹션에 임시로 주석을 하나씩 타이핑했다. [퍼덕거림1]에는 ‘헵타포드’를, [퍼덕거림2]에는 ‘예’를, 그리고 [퍼덕거림3]에는 ‘의자’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발화에 대한 표제로 〈언어: 헵타포드 A〉라고 기입했다.

게리는 내가 써넣은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 ‘A’라는 건 무슨 뜻이야?”

“단지 헵타포드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다른 언어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장난 삼아 시도해 보기로 할게.” 나는 각 헵타포드들을 손으로 가리키고 ‘헵타포드’를 의미하는 [퍼덕거림1]을 흉내내 보려고 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첫 번째 헵타포드가 뭐라고 말했고, 그러자 두 번째 헵타포드가 뭐라고 다른 말을 했다. 양쪽의 음향 분석 모두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향해 말을 건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릴 고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퍼덕거림1]을 다시 발음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을 수 없었다.

“비슷하게 들리지도 않는가 보군.”

나는 툭툭거렸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겐 놀랄 만한 일이야.”

게리가 말했다.

“내가 큰사슴 우는 소리를 내는 걸 못 들어 봤군. 일제히 달려가기 시작한다고.”

나는 몇 번 더 시도를 해 보았지만 헵타포드들은 내가 판별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헵타포드의 발음을 녹음한 것을 재생한 후에야 상대방의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헵타포드는 [퍼덕거림2], “예”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녹음 테이프만을 써야 해?”

게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작정인데?”

“저치들이 실은 ‘재네들 되게 귀엽게 노네’라든지, ‘재네들 지금 뭐하는지 좀 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해. 그런 다음 다른 헵타포드가 같은 말을 할 때 녹음된 소리와 동일한 단어를 판별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해.” 나는 게리에게 손짓으로 앉으라는 시늉을 했다. “편하게 앉아 있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1770년 쿡 선장 휘하의 범선 〈엔테버〉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즈랜드 해안에서 좌초했어. 쿡은 부하들 일부에게 수리를 맡겨 놓고, 탐험대를 이끌고 상륙해서 원주민들을 만났지. 선원 중 한 사람이 새끼를 배의 주머니에 넣고 경충경충 뛰며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가리키며

원주민에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어. 그러자 원주민은 “캥구루(Kanguru)”라고 대답했어. 이때부터 국과 그의 부하 선원들은 이 동물을 이 이름으로 불렀어. 그들은 나중에야 이 말이 실은 “방금 뭐라고 했지?”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지.

내가 맡은 기초 강좌에서 매년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곤 해.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또 나도 나중에 그 점을 지적하지만, 이것이 고전적인 일화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물론 내가 가르치는 학부생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것은 헵타포드에 관한 일화야. 내가 교직에 머무는 동안 그들 중 다수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내 수업을 택하지. 그래서 나는 내가 참여한 체경 대화 세션 및 다른 언어 학자들이 수행한 세션들을 녹화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그들에게 보여 주게 돼. 테이프에서는 배울 점이 많고, 우리가 다시 외계인들의 방문을 받는다면 쓸모가 있겠지만, 그럴듯한 일화를 많이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

언어 습득에 관한 일화의 경우 내가 가장 즐겨 쓰는 자료는 어린이 언어 습득에 관한 거야. 네가 다섯 살이었던 어느 날의 오후였어. 너는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지. 내가 리포트 채점을 하고 있는 동안 너는 크레용으로 색칠 놀이를 하고 있지.

“엄마.” 너는 뭔가 부탁을 할 때 쓰곤 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의 말투로 이렇게 말하지. “물어 봐도 돼?”

“물론이지, 우리 아기. 물어 봐.”

“나도 음, 칭찬받을(honored) 수 있을까?”

나는 채점하고 있던 리포트에서 고개를 들었지. “그게 무슨 뜻이니?”

“학교에서 샤론이 그러는데 자긴 칭찬을 받았대.”

“정말? 뭇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개 큰언니가 결혼했을 때. 샤론 말로는, 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 한 아이뿐이고, 자기가 그 아이였다나.”

“아, 그랬구나. 샤론이 신부 들러리(maid of honor)를 섰다는 얘기지?”

“응, 개도 그랬어. 엄마, 나도 그렇게 칭찬받을(made of honor) 수 있을까?”

게리와 나는 체경 캠프를 담당하는 작전 본부가 자리 잡은 조립식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침공 내지는 철수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짧은 머리의 군인들은 이 지역의 커다란 지도를 에워싸고 일하거나 육중한 전자 장치 앞에 앉아 헤드셋으로 교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건물 안쪽에 있는 웨버 대령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에어컨이 있어 시원했다.

우리는 첫날의 성과를 대령에게 간결하게 보고했다.

“그다지 큰 진전은 없었던 것 같군요.”

대령이 말했다.

“좀 더 연구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장비들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디지털 카메라 한 대와 대형 비디오 스크린이 필요해요.” 나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구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대령에게 보여 주었다. “글자 쓰기를 통해서 문법 인식을 진행하고 싶으니까. 스크린에 단어를 표시하고, 그들이 쓰는 글자를 카메라로 녹화할 작정입니다. 저는 헵타포드들도 같은 행동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웨버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내 그림을 바라보았다.

“이럴 경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글자를 가지지 않은 언어의 화자들을 상대로 할 때의 방법을 써 왔습니다. 하지만 햅타포드들도 문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만약 햅타포드들이 글자를 생성하는 기계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문자 체계는 매우 규칙적이고 안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엔 음소 대신 문자소(文字素)를 판별하면 되니까 작업은 더 쉬워지죠. 소리 내어 읽은 문장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대신에, 인쇄된 문장에서 개개의 글자를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령은 수궁했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할 작정입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준 단어들을 다시 보여준다든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야겠죠. 만약 그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빈 공간을 둔다면, 우리가 글로 쓰는 햅타포드 어의 문장은 그들 입장에서는 녹음된 말을 이어 붙인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대령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댔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한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여러 기계들을 매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글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음향분석기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대령은 계리를 쳐다보았다. “박사의 의견은?”

“괜찮은 아이디어로 생각되는데요. 햅타포드가 우리의 모니터 화면을 읽는 데 혹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체경은 우리의 비디오 화면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니

까요.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은 화소(畫素)나 주사선(走査線) 따위를 쓰고 있지는 않고, 프레임 단위로 화면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햅타포드들은 우리 비디오 화면의 주사선들을 읽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시도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웨버는 생각에 잠겼다. 내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군인답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요청을 승인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상사에게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 얘기를 하십시오.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네가 열여섯 살이었던 여름의 어느 날이 떠오른다. 이번에 데이트 상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네가 아닌 나야. 물론 너도 내 데이트 상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네 친구, 록시라는 엉뚱한 이름을 가진 금발의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킁킁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이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겠지만,” 나는 복도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화장을 체크하며 말하지. “우리가 떠날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

“걱정 마, 엄마.” 넌 이렇게 말하지. “그 아저씨는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록시, 나한테 오늘 밤 날씨가 어떨 것 같으냐고 물어봐 줘. 그럼 난 엄마의 데이트 상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테니까.”

“알았어.”

록시는 이렇게 대꾸하지.

“아냐. 절대 그러지 마.”

나는 이렇게 말해.

“힘 좀 빼요, 엄마. 그 아저씨는 절대로 모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린 맨날 이러는걸.”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잠시 후 넬슨이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와. 난 그이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모두 집 앞의 포치에서 잡담을 나누기 시작해. 넬슨은 이목구비가 투박하기는 하지만 잘 생겼고, 너는 그런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기색을 보여. 우리가 막 떠나려는 순간, 록시는 자연스러운 말투로 너한테 이렇게 말하지.

“오늘 밤 날씨가 어떨 것 같아?”

“폭폭 썰 것 같아.”

넌 이렇게 대답해.

록시도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지. 그러자 넬슨은 “정말? 일기예보에 서는 오늘 저녁에는 시원해질 거라고 하던데”라고 말해.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제6감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말하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엄청나게 무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날씨에 맞는 옷을 입어서 다행이네, 엄마.”

나는 너를 노려보고 잘 자라고 말하지.

앞장서서 넬슨과 함께 차로 갈 때 그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모양이군, 안 그래?”

“자기들끼리만 아는 농담이야.” 나는 중얼거리지. “그러니까 나더러 설명하라고는 하지 말아 줘.”

체경을 통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전에 했던 절차를 되풀이했지만, 이번에는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글자를 우리의 컴퓨터

화면에 표시했다. ‘인간’ 이라고 말하면서 ‘인간’ 이라는 단어를 보여 주는 식이다. 마침내 헵타포드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했고, 작은 대좌 위에 편평한 원형 화면을 설치했다. 헵타포드 하나가 말했고, 그런 다음 칠지 하나를 뺀어 대좌에 난 커다란 구멍에 집어넣었다. 어딘가 흘러 쓴 듯한 낙서 같은 느낌의 문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이것은 곧 일과가 되었고, 나는 발성과 그에 조응하는 문자 샘플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언어 자료를 편찬했다. 처음 받은 인상으로는 이들의 문자는 표어문자(表語文字)*처럼 보였고, 나는 이 사실에 실망했다. 그들의 문자가 음성언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파벳 식의 표음문자이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표어문자는 어느 정도 음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은 알파벳 식 문자가 개재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나는 체경으로 바짝 다가가서 헵타포드의 여러 신체 부위, 이를테면 칠지라든지 손가락, 눈 따위를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동체 아래쪽에는 골질(骨質)의 복잡한 주름 사이에 낀 구멍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아마 이것은 음식 섭취를 위한 것이고, 동체 꼭대기에 있는 것은 호흡하고 말하기 위한 것인 듯했다. 그 밖에 특별히 눈에 띄는 구멍은 없었다. 아마 그들의 입은 향문의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의문에 대한 해명은 일단 미루어 두는 수밖에 없다.

나는 두 명의 헵타포드에게 혹시 각 개체를 칭하는 개인적 이름 같은 것이 없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다. 그들의 대답은 물론 우리에게서는 발음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게리와 나의 편

logogram, 표어문자. 어표(語標).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가리키는 문자.

의를 위해 나는 그들에게 플래퍼와 래즈베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을 구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다음날 나는 체경이 있는 천막에 들어가기 전에 게리와 의논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당신 도움이 필요해.”

“얼마든지 도와주지. 무슨 일을 하면 되는데?”

“동사를 좀 이끌어 낼 필요가 있고, 그건 3인칭으로 하는 게 제일 쉽거든. 내가 컴퓨터에 동사 몇 개를 타이핑하는 동안 그것들을 몸으로 연기해 줄 수 있을까? 운이 좋으면 헵타포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똑같은 일을 해 줄지도 몰라. 당신이 쓸 소도구들을 여기 가지고 있어.”

“문제 없어.” 게리는 손마디를 꺾어 똑똑 소리를 내며 말했다. “언제든 준비만 되면 말해 줘.”

우리는 단순한 자동사(自動詞)들부터 시작했다. 걷다, 뛰어오르다, 말하다, 쓰다. 게리는 이 동사들을 하나씩 몸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멍쩍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비디오 카메라들이 촬영하고 있다는 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게리가 최초의 동작 몇 개를 실연한 다음 나는 헵타포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저걸 뭐라고 부릅니까?” 오래지 않아 헵타포드들은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렸다. 래즈베리는 게리의 몸짓을 흉내 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헵타포드의 몸동작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플래퍼는 자기들의 컴퓨터를 써서 글자를 표시하고 큰 소리로 발음했다.

음향분석기에 나타난 그들의 발화(發話)에서 나는 내가 ‘헵타포드’라는 주석을 붙인 단어를 식별할 수 있었다. 발화의 나머지 부분은 아마 동사구(動詞句)일 것이다. 그들의 언어에는 명사나 동사에 해당하

는 것들이 있는 듯했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글자의 경우는 그만큼 명확하지가 않았다. 각각의 동작에 대해 그들은 두 개의 각각 다른 표어문자 대신 하나의 표어문자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이 영어의 ‘걷는다(walks)’라는 단어처럼 주어의 존재를 시사하는 문자를 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플래퍼는 왜 말할 때는 ‘헵타포드가 걷는다(the heptapod walks)’라고 하면서 글을 쓸 때는 이에 조용하는 단어들을 쓰지 않고 그냥 ‘걷는다(walks)’라고 쓰는 것일까? 문득 나는 표어문자들 중 일부는 ‘헵타포드’를 의미하는 표어문자 한쪽에 여분의 선을 몇 개 추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 그들의 동사는 명사에 대한 접사(接詞)의 형태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플래퍼는 왜 어떤 경우에는 명사를 쓰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타동사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목적어를 도입한다면 사정이 좀 더 명확해질지도 모른다. 내가 가져온 소도구들 중에는 사과 한 알과 빵 한 조각이 있었다.

“오케이.” 나는 게리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음식을 보여 주고 조금 먹는 걸 보여 줘. 우선 사과를 먹고, 그 다음에는 빵을.”

게리는 골든 딜리셔스 중 사과를 가리킨 다음 한입 베어 물었고, 그 사이에 나는 비디오 화면에 “당신들은 저걸 뭐라고 부르지?”라는 표현을 보여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통밀빵 조각을 써서 같은 절차를 되풀이했다.

그러자 래즈베리는 방을 나갔고, 잠시 후 거대한 견과(堅果) 내지는 호리병박처럼 보이는 물체와 젤리상(狀)의 달걀 같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래즈베리가 호리병박을 가리키는 동안 플래퍼는 어떤 말을 하고 표어문자를 화면에 제시했다. 그런 다음 래즈베리는 호리병박을 자

기 다리들 사이로 가져갔다. 그러자 우드득하는 소리가 들렸고, 한 입 베어 문 듯한 상태의 호리병박이 다시 출현했다. 호리병박의 껍질 속에는 옥수수 낱알 같은 것들이 들어 차 있었다. 플래퍼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화면에 커다란 표어문자를 제시했다. ‘호리병박’을 의미하는 음향 패턴이 이 문장에서는 변해 있었다. 아마 격표지(格標識)일지도 모르겠다. 이 표어문자는 뭔가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잠시 관찰해 본 결과 나는 이 표어문자에서 ‘헵타포드’, ‘호리병박’을 의미하는 표어문자들과 유사한 문자적 요소들을 발견했다. 이것들을 마치 서로 융합시켜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들어 있는 여분의 선들 몇 개는 ‘먹는다’라는 뜻인 것처럼 보였다. 여러 개의 단어를 연결한 합자(合字)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다음에는 젤리 달걀에 대응하는 소리와 글자, 그리고 그것을 먹는 동작의 기술(記述)이 제시되었다. ‘헵타포드가 젤리 달걀을 먹는다’에 대응하는 음향 패턴은 분석 가능했다. 아까와는 어순이 다르기는 했지만, ‘젤리 달걀’에는 예상했던 대로 격표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들이 제시한 커다란 표어문자는 얘기가 달랐다. 그 구성 요소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데는 아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다. 개개의 표어문자들이 아까처럼 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헵타포드’를 의미하는 문자는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았고, 융합된 표어문자 꼭대기에 위치한 ‘젤리 달걀’을 의미하는 표어문자는 물구나무를 선 상태였던 것이다.

“흐음.”

나는 단순한 명사와 동사의 예를 찾아 그들의 글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예전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 말이다. 지금 보니 이것들 모두가 실은 ‘헵타포드’를 나타내는 표어문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여러 동사와 결합함으로써

회전하고 변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별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세상에.”

나는 중얼거렸다.

“뭐가 문제지?”

게리가 물었다.

“저 글은 단어로 분할되어 있지 않아. 그 대신 구성 단어들에 해당하는 표어문자를 결합해서 센텐스를 표기하고 있어. 회전시키고 수정한 표어문자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말야. 이걸 봐.”

나는 그에게 표어문자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저치들은 한 단어가 어떤 식으로 회전해도 다른 경우와 똑같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뜻이군.” 게리가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려 감탄하는 듯한 눈초리로 헵타포드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그건 몸이 방사상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들의 몸은 ‘전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글자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 실로 끝내 주는 방식이로구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끝내 준다’라는 말을 ‘실로’라는 말로 수식하는 사람이었다니. “흥미로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들 자신의 글을 그들의 언어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가 돼. 그들의 글을 개개의 단어로 그냥 분해해서 재조립할 수는 없으니까 말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걸 쓰려면 그들의 문장 규칙을 모두 습득해야 해. 적용 대상이 글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발화(發話)의 단편을 이어 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직면했던 지속성의 문제와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체경 안에서 우리가 작업을 계속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플래퍼와 래즈베리를 바라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일을 쉽게 만들어 줄 생각은 없구나, 안 그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말해 두지만 헵타포드들은 무척이나 협조적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 웨버와 다른 군 관계자들이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관해 숙고하는 동안, 나와 다른 체경 캠프의 언어학자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헵타포드의 언어에 관해 서로가 알아낸 정보를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면 어쩐지 어색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의 비디오 화면은 헵타포드의 체경에 비하면 원시적이었고, 따라서 그것을 통해 보는 내 동료들은 외계인들보다 더 먼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친근하게 느껴야 할 쪽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해, 기괴한 쪽은 극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나 할까.

그들이 왜 지구로 왔는지 물어 보거나, 그들의 기술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물리학 토론을 하게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분간은 음소론(音素論) 및 자소론(字素論), 어휘, 통어론 등의 분야에서 기초를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모든 체경의 헵타포드들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데이터를 합치고 협조해서 일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 된 것은 헵타포드의 ‘글’이었다. 이들의 글은 전혀 글 같지가 않았고, 오히려 정교한 그래픽 디자인의 집합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행(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나선형으로 배치된 것도 아닌 그들의 표어문자는 선형적(線形的)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플래퍼나 래즈베리는 새로운 표어문자가 필요해질 때마다 원래의 표어문자에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거대한 혼합 문자를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형태의 문자는 원시적인 기호 시스템을 연상케 했다. 이 경우

기호를 읽는 사람은 메시지 전체의 문맥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헵타포드들이 단순한 구비(口碑) 전통만으로 그들의 현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헵타포드들은 진정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앞에서는 쓰고 싶지 않아 할 가능성이다. 웨버 대령이라면 기꺼이 이 견해를 지지할 것이다. 두 번째는 헵타포드들이 지금 쓰고 있는 과학기술은 본래 그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타 종족의 과학기술을 쓰고 있는 문맹들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세 번째 가설은 헵타포드들이 진정한 문자로서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비선형적(非線形的) 문자 체계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무렵의 대화를 기억해. 일요일 아침이고, 내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는 동안 너는 브런치를 먹을 식탁에 식기를 차려 놓고 있지. 어젯밤 잤던 파티 얘기를 내게 해 주면서 너는 웃어.

“세상에.” 너는 이렇게 말하지. “체중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얘기는 농담이 아니었어, 엄마. 사내애들보다 더 마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훨씬 더 취했거든.”

나는 상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해. 정말로.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

“에이, 그런 얼굴 하지 마, 엄마.”

“무슨 얼굴?”

“엄마도 내 나이 땀 나하고 똑같았으면서 뭘 그래.”

나는 그런 일은 전혀 한 적이 없지만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나에게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잃으리라는 걸 알아. “그럴 경우엔 결코 운전도 하지 않고, 차에 따라 들어가지도 않아야 ——”

“갑소사. 그건 당연하잖아. 엄만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아니, 네가 바보일 리가 없잖아.”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너는 명백하게, 기가 막힐 정도로 나와는 다르다는 사실. 이 생각은 또다시 내가 나의 복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 주지. 너는 매일 매일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넌 결코 내 혼자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군은 체정이 있는 지점 부근에 우리가 각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이동 주택을 설치해 놓았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계리를 보고 달려갔다.

“의미표시 문자였어.” 그를 따라잡자마자 대뜸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계리가 되물었다.

“내가 직접 보여줄게.” 나는 계리를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방안에서 나는 칠판에 원을 그리고 사선(斜線)을 그어 그것을 반으로 갈랐다. “자, 이건 무슨 뜻?”

“〈출입금지〉?”

“맞아.” 나는 칠판에 〈출입금지〉라는 단어를 썼다. “그리고 이 그림도 같은 뜻을 전달하지. 하지만 둘 중에서 실제 발화(發話)를 표시하고 있는 건 하나뿐이야.”

계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언어학자들은 이런 글자를 ——” 이렇게 말하며 나는 내가 쓴 글자를 가리켰다. “—— 입으로 말한 말을 표현한다고 해서 ‘음성표시(glottographic)’ 문자라고 불러. 인간의 모든 문자언어는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가지. 하지만, 이 상징은 ——” 나는 원과 사선을 가리켰다. “—— 발화된 소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의미표시(semasiographic)’ 문자라고 해.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특정한 음과 아무런 조음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헵타포드의 문자는 모두 이런 거란 뜻이야?”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그런 것 같아. 그림문자는 아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 문장을 구성하는 자체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사이의 회화에 적용되는 통어법(統語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각적 통사법(統辭法)이라고나 할까.”

“시각적 통사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당장 보여 줄 수 있어.”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조작했고, 어제 래즈베리와 나눴던 대화의 녹화 기록에서 정지 영상을 하나 불러냈다. 그런 다음 모니터를 돌려 계리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헵타포드의 구화(口話)에서 명사는 그것이 주어인지 아니면 목적어인지를 나타내는 격표지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문자언어에서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은 동사를 나타내는 표어문자에 대해 명사를 나타내는 표어문자가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야. 자, 여기를 봐.” 나는 문자 집합체 하나를 가리켰다. “예를 들어 ‘헵타포드’라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단어와 이런 식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여기 이런 평행선을 넣음으로써 이 헵타포드가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해.” 나는 계리에게 다른 집합체를 보여 주었다. “표어문자들이 여기 이런 수직선들을 써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헵타포드의 말이 남에게 들리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식의 어형 변환은 다른 동사들

몇 개에도 해당되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굴절(屈折) 체계가 있어.” 나는 다른 정지 영상을 불러냈다. “그들의 문자언어에서 이 표어문자는 대략 ‘쉽게 듣는다’ 내지는 ‘뚜렷하게 듣는다’라는 뜻이지. 이것과 ‘듣는다’라는 표어 문자 사이의 공통점들이 보이지? 이것 역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헵타포드’라는 말과 결합시켜서 헵타포드가 뭔가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헵타포드의 말이 뚜렷하게 들린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건 ‘듣는다’에서 ‘뚜렷하게 듣는다’로의 변화는 특별한 예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적용한 변형을 알아볼 수 있겠어?”

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가리켰다.

“중간계에 있는 획들의 곡선을 변화시켜서 ‘뚜렷하게’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군.”

“맞아. 그런 식의 변화를 많은 동사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보다’라는 뜻의 표어문자를 같은 방법을 써서 ‘뚜렷하게 보다’라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읽다’나 그 밖의 동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들의 발화에서 이 획들의 곡선을 바꾸는 행위에 조응하는 것은 없어. 그러는 대신 그들은 동사에 접두사를 붙여서 상황의 용이함을 나타내고, ‘보다’와 ‘듣다’에 붙는 접두사는 각각 달라. 이것들 말고 다른 예도 있지만, 개념은 이미 이해했겠지. 이건 본질적으로 2차원적인 문법인 거야.”

게리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방 안을 왔다갔다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문자체계에서 이것과 조금이라도 닮은 것은 없어?”

“수학의 방정식이나 음악과 무용의 표기법.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극히 전문화된 경우야. 그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를 기록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이 대

화를 헵타포드의 문자체계를 써서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완성된 하나의 범용 도시언어(圖示言語)라고 생각해.”

게리는 미간을 찡그렸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자는 입으로 말하는 언어와는 완전히 별개의 언어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응. 사실 그들의 문자 체계를 <헵타포드 B>라고 부르고, <헵타포드 A>는 입으로 말하는 언어를 언급할 경우에만 엄밀하게 한정시키는 것이 더 정확해.”

“잠깐 기다려. 하나면 충분할 걸 가지고 왜 두 개의 언어를 쓰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습득을 어렵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영어 철자법처럼?” 나는 계속 말했다.

“언어 진화에서 습득의 용이함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 헵타포드의 경우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인지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아예 다른 언어를 쓰는 편이 오히려 같은 언어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논리적인지도 모르는 일이지.”

게리는 내가 한 말에 관해 생각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아마 그들은 우리의 문자 체계는 과잉 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제2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있는데도 허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야.”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글을 쓸 때 그들이 왜 제2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들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야.”

“바꿔 말하자면 그들의 문자를 통해서 그들이 대화할 때 쓰는 언어를 배울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어. 하지만 <헵타포드 A>든 든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에만 치우

치면 안 돼. 양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당신이 헵타포드들의 2차원적 문법을 배운다면 나중에 그들의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은 확실해.”

“맞는 말이군. 그럼 그치들에게 수학에 관한 질문을 할 준비가 되었어?”

“아직은 아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그들의 문자 시스템을 좀 더 잘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 나는 이렇게 말했고, 그가 짐짓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자 미소 지었다. “지금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교수님. 인내는 미덕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내가 여섯 살일 때 네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돼. 우리도 그를 따라서 하와이로 가지. 너는 흥분한 나머지 몇 주 전부터 여행 준비를 하기 시작하지. 코코넛과 화산과 서핑에 관해 질문하고, 거울을 보면서 홀라춤 연습을 해. 여행 가방에 가지고 갈 옷과 장난감을 잔뜩 집어넣고, 가방을 끌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오래 그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내 가방에 네 에치어스케치*를 넣어 줄 수는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 보기까지 하지. 반드시 가져가야 하지만, 네 가방에는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다면서 말야.

“그 많은 걸 몽땅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라고 나는 말하지. “거기가면 재미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가도 놀 틈이 없을 거야.”

너는 이 말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열심히 생각할 때면 언제나 네 눈썹 위에 주름을 짓곤 하지. 결국 너는 장난감을 덜 챙겨 가기로 하지만, 너의 기대는 줄어들기는커녕 한층 더 커지지.

etch-a-sketch, 두 개의 다이얼로 돌려 스크린 위에 그림을 그리는 완구

“지금 당장 하와이 가고 싶어.”

너는 이렇게 떼를 써.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게 좋을 때도 있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즐거움도 더 많아지는 법이란단다.”

너는 그냥 토라진 얼굴로 입을 비죽 내밀어.

다음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는 ‘표어문자(表語文字; logogram)’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표어문자라는 개념에는 해당 도시(圖示)가 입으로 발화된 단어를 나타낸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헵타포드 언어의 경우 문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화 개념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표의문자(表意文字; ideogram)’라는 용어도 과거에 남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의문자(語義文字; semagram)’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했다.

어의문자는 인간 언어의 문자와 대략 조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어의문자는 자체적인 의미를 가지며, 다른 어의문자들과 결합해서 무한하게 서술할 수 있다. 그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 언어의 ‘단어’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정의가 내려진 적은 아직 없는 것이다. 그러나 〈헵타포드 B〉의 문장에 들어서면 사정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 언어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갈라 주는 구두법(句讀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 구문(構文)은 어의문자들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고, 발화의 억양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주부-술부 조합만 알기 쉽게 따로 떼어 내서 문장을 구성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헵타포드에게 ‘문장’이란 몇 개이든 좋으니 당사자가 결합하려고 마음먹은 어의문자들인 것 같았다. 센텐스와 단락, 혹은 센텐스와 페이지의 차이는 단지 그 크기일 뿐이다.

〈헵타포드 B〉의 센텐스 크기가 상당히 커지면 그 시각적 효과는 놀랄 만한 것이 된다. 해독하려는 의도 없이 이 문자를 보았을 때는 초서체로 그린 기상천외한 사마귀들의 집합처럼 보인다. 이들 모두가 마치 어서가 그린 격자 무늬처럼 서로 달라붙어 있으면서도, 각자가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크기의 센텐스들은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을 흐릿하게 하고 눈물을 고이게 만들고, 때로는 최면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사이키델릭 포스터를 방불케 한다.

내가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을 기억한다. 사진에서 너는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지. 졸업모를 벗부린 각도로 비스듬하게 쓰고, 한 손을 선글라스에 갖다 대고, 허리에 댄 다른 손으로는 졸업가운을 잡아당겨 안에 입은 탱크탑과 반바지를 일부러 보여주고 있지.

내 졸업식을 기억해. 벨슨과 네 아버지와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그 젊은 여자가 모두 같은 장소에 와 있는 탓에 조금 정신이 산만해지긴 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주말 내내 너는 나를 네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쉬지도 않고 포옹을 하지. 그런 너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탓에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돼. 나보다 키도 크고 가슴이 저려 올 정도로 아름다운 성인 여성인 네가, 분수식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들어올려 주곤 했던 어린 소녀, 내 옷장에서 꺼낸 드레스와 모자와 네 장의 스카프를 몸에 두르고 내 침실에서 구르듯이 달려나오고 했던 어린 소녀와 동일한 인물이 라니.

그리고 졸업 후에 너는 직장을 얻고 금융 분석가로서의 길을 가게 돼. 직장에서 네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왜 그렇게 돈에 매료당하는지, 또 직장을 제시받았을 때 네가 요구했던 파격적인 연봉에 관해서조차도 이해하지 못해. 나로서는 네가 금전적인 보상

에는 연연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추구해 왔으면 좋겠지만, 불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 내 어머니도 내가 왜 고등학교에서 그냥 영어 선생 노릇을 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지. 너는 네가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면 되고, 내가 너에게서 원하는 것은 오직 그뿐 이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 체경이 위치한 곳들을 담당한 연구팀들은 헵타포드의 초보적인 수학과 물리학 용어를 본격적으로 습득하기 시작했다. 성과 발표회에서 언어학자들은 의사소통 과정에, 물리학자들은 해당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했다. 물리학자들은 외계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과거에 고안된 체계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다. 수학에 입각한 체계였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파 망원경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의사소통용으로 개량했다.

우리 팀은 기초적인 산수 분야에서는 성과를 올렸지만, 기하학과 대수에서는 장벽에 부딪혔다. 직각 좌표계 대신 구면(球面) 좌표계를 쓴 것은, 헵타포드의 해부학적 구조에는 이쪽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 접근법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헵타포드들은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리학 토론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나마 성공을 거둔 것은 원소 명칭의 경우처럼 가장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때로 국한되었다. 원소 주기율표를 보여 주려는 시도가 몇 번 있은 후에야 헵타포드들은 그 개념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들과 조금이라도 추상적인 것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잡담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질량이나 가속도 따위의 물리학의 기본적인 특성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용어를 그들로부터 끌어내려고 시도했지

만, 헵타포드들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뿐이었다. 의사소통 시에 특정 매체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지각적(知覺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물리적인 시연(試演)뿐만 아니라 선으로 그린 그림, 사진, 동영상 따위를 써 보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진전이 없었던 며칠은 곧 몇 주가 되었고, 물리학자들은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어학자들은 소정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발화 언어인 〈헵타포드 A〉의 문법 해석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인간 언어의 패턴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헵타포드 A〉의 어순은 완전히 자유로웠고, 조건서술문 안의 여러 구(句)의 경우에도 마치 인간 언어의 ‘보편성’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별다른 우선 순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헵타포드들은 문장 중간에 여러 레벨에 걸쳐 구를 삽입하는 데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금세 포기해 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이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은 〈헵타포드 B〉에서 새로 발견된, 유례를 볼 수 없는 2차원적인 어형 및 문법 변환 절차였다. 해당 어의문자의 어형 변화에 따라, 어떤 획의 곡률(曲率)이나 두께, 혹은 굽이치는 정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굴절(屈折)을 나타내는 식이었다. 혹은 두 어근의 상대적인 크기에 변화를 준다든지, 두 어근과 또 하나의 다른 어근 사이의 상대적 거리나 방향에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비분절적(非分節的)인 문자소이며, 해당 어의문자의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문자 체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와는 별도로 이것들은 서예의 서체와는 무관했다. 문자소들의 의미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문법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헵타포드들에게 왜 지구로 왔는지를 물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보기 위해’, 혹은 ‘관찰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다. 사실 그들은 우리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아무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쪽을 선호할 때가 종종 있었다. 아마 그들은 과학자들일지도 모르고, 관광객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류에 관한 정보는 가급적 알리지 말라는 국무성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 정보가 향후에 있을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시에 따랐지만, 어차피 그것은 별로 힘들지 않았다. 헵타포드들은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가 과학자이든 관광객이든 간에, 지독하게도 호기심이 없는 자들이었다.

네가 입을 새 옷을 사기 위해 차를 몰고 함께 쇼핑물로 갈 때의 일이 생각난다. 너는 열세 살이야. 어떨 때 너는 완전히 어린애가 되어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좌석 위에 축 늘어져 있지만, 다음 순간 너는 훈련 중인 패션 모델처럼 짐짓 자연스러운 태도로 긴 머리카락을 뒤로 뺄 넘기고 있지.

내가 차를 주차하고 있을 때 너는 나한테 이런 지시를 내려.

“오케이. 엄마 신용카드를 나한테 빌려 주기만 하면 돼. 두 시간 뒤에 저기 앞문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는 웃어.

“안 돼. 신용카드는 전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동담이시겠조.” 그리고 너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온몸으로 분개하겠지. 우리는 차에서 나오고, 나는 쇼핑물 정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해. 내가 전혀 께일 기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너는 재빨리 작전을 변경하지.

“알았어, 엄마. 알았다니까. 엄마가 함께 와도 돼. 내 뒤로 조금 떨어져서 걸으면 우리는 동행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야. 혹시 가다가 친구라도 만나서 잠깐 얘기하거든 엄마는 그냥 지나쳐 줘. 나중에 내가 가서 찾을게.”

나는 걸음을 멈춘다.

“아니, 뭐라고? 난 네 하인도 아니고, 같이 다니면 창피한 돌연변이 종의 친척도 아냐.”

“하지만 엄마, 난 내가 엄마하고 다니는 걸 누가 보는 게 싫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예전에도 난 네 친구들을 만나 봤잖아. 집에도 왔었고.”

“그건 달라.” 세상에 이런 일까지 설명해야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너는 말하지. “이건 쇼핑이잖아.”

“어머, 참 유감이로구나.”

그러면 폭발.

“엄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은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지! 나 따위는 어떻게 되어도 전혀 상관 안 하는 거야!”

네가 나와 쇼핑하러 가는 것을 즐기던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얘기가 아냐. 네 성장 단계가 넘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놀라움이 끊이지 않는구나. 너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마치 움직이는 목표를 조준하려는 것과 같아. 너는 언제나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가 있는 거야.

나는 단순한 펜과 종이를 써서 내가 방금 쓴 〈헵타포드 B〉의 문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생성한 다른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보기 흉한 모양이었다. 헵타포드가 쓴 문장을 해머로 때려 부순 다음 테이프로 엉성하게 다시 이어 붙인 듯한 꼴이다. 내 책상은 이렇게 우아하지 못한

어의문자를 쓴 종으로 뒤덮여 있다시피 했고, 회전하는 선풍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퍼덕이곤 했다.

발화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기묘한 체험이었다. 발음을 연습하는 대신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눈꺼풀 안쪽에 어의 문자들을 그려 보는 버릇이 생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게리가 들뜬 표정으로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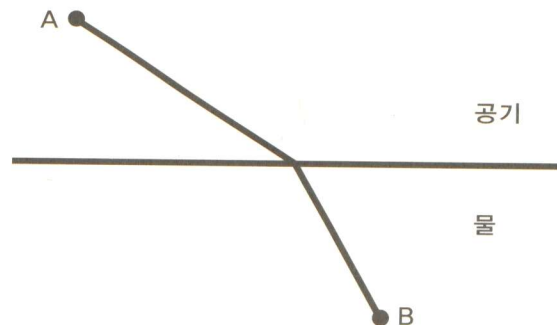
“일리노이에서 물리학 쪽의 대답을 얻었어.”

“정말? 진짜 좋은 소식이네. 언제 그랬대?”

“몇 시간 전에. 방금 화상회의를 하고 온 참이야. 그게 뭔지 보여 주지.” 게리는 내 칠판에 쓰인 것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걱정 안 해도 돼. 필요없는 것들이니까.”

“좋아, 좋아.” 게리는 분필 토막을 집어 올려서 도표를 하나 그렸다.



“자, 이걸 빛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의 경로야. 빛은 수면에 닿을 때까지는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물은 공기와는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 예전에도 들어 본

적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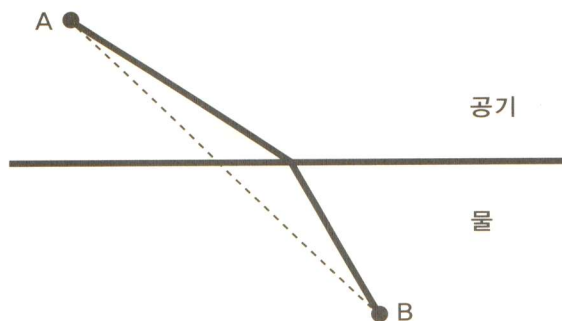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자, 이 빛이 지나는 경로에는 흥미로운 특성이 있어. 그건 이 두 지점을 지나는 시간을 가장 짧게 하는 경로야.”

“뭐라고?”

“그냥 웃자는 애기쫄으로 생각하고 빛이 이런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상정해 봐.”

게리는 도표에 점선을 하나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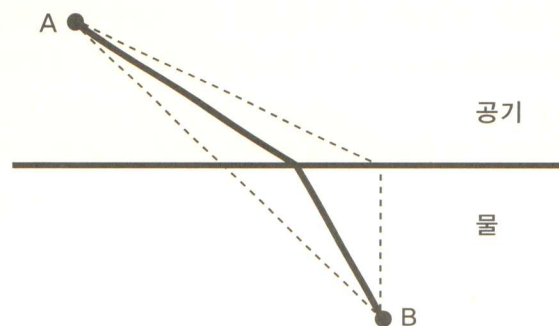


“이 가상의 경로는 빛이 실제로 지나는 경로보다 짧아. 하지만 빛은 물속에서는 공기 속에서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고, 이 경로에서는 물속에 있는 부분이 더 길지. 따라서 빛이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려면 실제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려.”

“응, 이해했어.”

“그럼 빛이 이것과는 또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

게리는 두 번째의 경로를 그렸다.



“이 경로에서는 물속에 있는 부분의 비율이 줄어들지만, 전체 길이는 늘어나지. 또 이 경로로 가면 실제 경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게리는 분필을 내려놓고 백묵 가루가 묻은 손가락으로 칠판의 그림을 가리켰다.

“그 어떤 가상의 경로도 실제로 선택된 경로보다 더 시간이 걸려. 바꿔 말하자면, 광선이 취하는 경로는 언제나 최소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라는 뜻이지. 이것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라고 하지.”

“흐음, 재미있네. 그럼 헵타포드들은 이것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무어헤드가 일리노이의 체경 앞에서 페르마의 원리를 동영상으로 나타내 보였더니 헵타포드들은 그걸 되풀이했던 거야. 지금은 기호에 의한 기술(記述)을 얻어내 보려는 중이구나.” 게리는 씩 웃었다. “실로 끝내 준다는 느낌이 안 들어?”

“끝내 주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왜 아무도 나한테 페르마의 원리를 귀뜸해 주지 않은 거야?” 나는 서류철을 집어 들고 게리를 향해 그것을 흔들어 보였다. 헵타포드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제안된 물리학 문제들에 관한 기초적 설명이었다. “여기엔 플랑크 질량이니 수소

원자의 스핀 반전이니 하는 얘기만 잔뜩 나와 있고, 빛의 굴절에 관한 얘기 따윈 단 한 마디도 나와 있지 않잖아.”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린 잘못된 추측을 했던 거야.” 게리는 얼굴빛도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사실, 페르마의 원리가 최초의 돌파구를 제공해 줬다는 점은 흥미로워. 설명하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 수학적으로 이걸 기술하기 위해서는 미분(微分)이 필요해. 그것도 보통 미분이 아니라 변분법(變分法)이. 우린 기 하나 대수의 단순한 정리가 돌파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말야.”

“정말 흥미롭네. 혹시 무엇이 단순한지에 관한 헵타포드의 생각은 우리들과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난 페르마의 원리에 대한 그치들의 수학적 기술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방 안을 왔다갔다했다. “만약 헵타포드 식 변분법이 그들의 대수학보다 더 단순하다면, 우리들이 물리학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의 수학 체계 전체가 우리들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일 가능성도 있어.” 게리는 물리학 입문서를 가리켰다. “우리가 나중에 저걸 개정하게 되는 것만은 확실해.”

“그럼 페르마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학의 다른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마 그렇겠지. 페르마의 원리를 닮은 물리학 원리는 많이 있으니까 말야.”

“흐음, 이를테면 루이즈의 최소 벽장 공간의 원리 같은 거 말야? 물리학은 언제부터 그렇게 미니멀리즘을 신봉하게 됐지?”

“흐음, 실은 그 ‘최소’라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어.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는 불완전하거든. 어떤 상황에서 광선은 그 어떤 가능성들

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하니까 말야. 따라서 빛은 언제나 극치(極值)의 경로, 바꿔 말하자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최대화하는 경로를 택한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해. 최소와 최대는 수학적 속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두 상황 모두 하나의 방정식을 써서 나타낼 수 있지.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페르마의 원리는 최단 원칙이라기보다는 ‘변분(變分; variational)’ 원리 중 하나에 해당해.”

“그러면 그런 변분 원리가 그것 말고도 더 있단 말야?”

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리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존재하지. 거의 모든 물리학 법칙은 변분 원리의 하나로서 다시 기술될 수 있어. 이 원리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어떤 속성이 최소화되고, 최대화되는지에 달려 있어.” 게리는 마치 탁자 위에 물리학의 여러 분야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듯한 태도로 손짓해 보였다. “페르마의 원리가 적용되는 광학(光學)에서 극치를 가져야 하는 속성은 시간이야. 역학에서는 또 다른 속성이 적용되지. 전자기학에서는 역시 또 다른 속성이 대두되지. 그러나 그런 원리들은 수학적으로는 모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일단 페르마의 원리에 대한 헵타포드들의 기술을 입수한다면, 다른 원리들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네.”

“물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던 실마리이고, 그치들의 물리학 체계를 해독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 축하할 만한 일이군.” 게리는 왔다갔다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봐, 루이즈. 저녁 먹으러 가지 않을래? 내가 살게.”

나는 조금 놀라움을 느꼈다.

“그러지 뭐.”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매일 자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걷기 연습을 시작하면서부터야. 너는 쉬지 않고 어딘가로 달려 나가고, 문지방에 부딪히거나 무릎이 까질 때마다 나는 너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게 돼. 그건 마치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하는 팔이나 다리가 하나 더 생긴 듯한 느낌이지. 내 몸의 연장이므로 지각 신경이 느끼는 아픔은 고스란히 나한테 전달되지만, 운동 신경은 전혀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꼴이야. 정말 불공평해. 나를 본떠서 빛은 움직이는 부두 인형을 낳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나는 이런 조항을 읽은 기억이 없어. 이것도 계약의 일부라고요?

반대로 내가 웃는 것을 볼 때도 있지. 이를테면 쇠그물 울타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이웃집 강아지와 놀 때. 너무 크게 웃는 탓에 급기야는 딸꾹질을 시작하지. 강아지가 옆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의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너는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해. 그러면 다시 강아지가 밖으로 나와서 네 손가락을 핥고, 그럼 너는 또 껍 소리를 지르고 웃기 시작할 거야. 그 소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소리야. 마치 내가 분수나 샘이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만들어 주는 소리란다.

자기 몸의 안전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너의 행동을 목격한 내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지경이 될 때 그 소리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 돌파구가 열린 이후, 과학 개념에 관한 토론은 예전보다 더 실리가 있는 것이 되었다. 헵타포드 물리학이 갑자기 투명하게 개방된 것은 아니었지만,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 게리 말에

의하면 헵타포드의 물리학 체계는 정말로 우리 것과는 거꾸로라고 한다. 인간이 적분학을 써서 정의한 물리학적 속성들을 헵타포드는 기본적인 것들로 간주하는 듯했다. 게리는 물리학 용어로 '시간으로 적분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 어쩌고 하는 속성을 헵타포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작용'이라는 개념 하나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우리에게서는 복잡한 적분이지만, 그들에게는 초보적인 개념인 것이다.

역(逆)으로, 속도 따위의 인간이 기초적으로 간주하는 속성들을 정의할 때 헵타포드들이 채용하는 수학은 게리가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실로 괴상망측'하다고 한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헵타포드의 수학과 인간의 수학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각자가 거의 정반대의 접근법을 채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양쪽 모두 동일한 물리 우주를 기술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이 고안한 방정식들 일부를 나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작용' 따위의 물리적 속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속성을 초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중요성을 확신을 가지고 음미하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좀 더 익숙한 용어를 써서 기술되는 의문들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페르마의 원리를 빛의 굴절에 관한 가장 단순한 설명으로 간주하다니, 도대체 헵타포드들은 어떤 종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최소나 최대를 자명한 것으로만 들어 버리는 종류의 지각 작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는 아버지의 푸른 눈을 이어받았고, 나처럼 우중충한 갈색이 아냐. 남자아이들은 과거에 내가 네 아버지에게 그랬고, 지금도 그러듯이

그 눈을 들여다보고 푸른 눈과 흑발의 대비를 깨닫고, 내가 그랬고 지금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고, 매료당하지. 너는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구애를 받게 될 거야.

네가 열다섯 살이었을 때를 기억해. 아빠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온 너는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내아이에 관해 마치 취조를 하듯이 꼬치꼬치 캐묻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 너는 소파 위에 누어져서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아빠의 몰상식한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어.

“글쎄, 그때 아빠가 뭐랬는지 알아? ‘난 십대 사내아이가 어떤 놈들인지 잘 알아’ 라고 했어.” 너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굴리지. “마치 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이었다니까.”

“너무 아빠 탓만 하지마.” 나는 이렇게 말해. “네 아빠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야.” 네가 친구들을 사귀는 방식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남자의 꼬임 따위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쪽인가 하면,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나 할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이지.

“아빠 아직도 내가 어린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봐. 내 가슴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흐음, 몸의 그런 발달은 아빠한테는 쇼크였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회복할 시간을 주면 어떨까.”

“벌써 몇 년이나 됐잖아, 엄마. 회복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걸린단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회복하면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언어학자들을 위해 열린 어느 화상회의에서, 매사추세츠의 체경을 연구하고 있는 시스네로스가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헵타포드 B>

의 문장을 이루는 어의문자들에는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을까? 그들이 <헵타포드 A>를 말할 경우 어순은 아예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했다. 방금 말한 것을 반복해 탈라고 우리가 요청하면, 헵타포드는 우리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다른 어순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헵타포드 B>의 문장을 쓸 경우의 어순도 이와 비슷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헵타포드 B>의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양에만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이 어떤 문장 속의 어의문자들을 읽을 때 특별히 선호하는 어순은 없었다. 새둥지처럼 열기설기 뒤섞인 문장 어디에서 읽기 시작해도 좋았고, 그대로 분기(分岐)하는 절(節)들을 따라가면 결국 문장 전체를 읽게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읽을 경우의 얘기였다. 쓰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일까?

플래퍼와 래즈베리와 가진 가장 최근의 세션에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어의문자를 완전히 쓴 다음에 보여 주는 대신에 쓰는 과정까지 우리에게 보여 줄 수는 없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나는 이 회합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VCR에 삽입했고, 컴퓨터로 이 세션의 필기록을 확인했다.

그들과 나눈 대화에서 비교적 긴 발언 하나를 골라냈다. 플래퍼의 말에 의하면 헵타포드의 행성에는 달이 두 개 있고,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한다. 행성 대기를 구성하는 3대 성분은 질소와 아르곤과 산소이다. 그리고 행성 표면의 28분의 15는 물로 뒤덮여 있다. 헵타포드의 입에서 나온 말의 처음 단어들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크기의-불균형 암석-궤도 비행체들 주(主)-부(副)-관계로-맺어진>이 된다.

그런 다음 이 발언에 대응하는 어의문자가 쓰여지는 곳까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검은 거미줄 같은 선이 어의

문자로 이루어진 그물을 자아내는 광경을 응시했다. 나는 테이프를 되 감고 다시 재생하는 일을 몇 번 반복했다. 마침내 나는 처음 획이 완성 되고 두 번째 획이 시작되기 직전에 테이프를 정지시켰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구불구불한 선뿐이다.

완성된 문장과 최초의 획을 비교해 보고, 이 획이 메시지에 포함된 별도의 구(句) 몇 개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산소〉를 의미하는 어의문자로서, 다른 몇몇 원소로부터 그것을 구분하는 한정사(限定辭)로 기능했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두 개의 달의 크기에 관한 묘사에서 비교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形態素)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폭이 넓어지면서 〈바다〉를 의미하는 어의 문자의 호(弧)를 그린 등골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획은 하나의 연속된 선이었고, 플래퍼가 가장 먼저 그린 획인 것이다. 그렇다면 헵타포드는 최초의 획을 긋기도 전에 문장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문장의 다른 획들도 복수(複數)의 구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이들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하기 때문에 그 중 하나라도 빠려면 문장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헵타포드들은 문장을 쓸 때 어의문자를 하나씩 차례로 쓰지는 않는다. 그러는 대신 개개의 어의문자에 구애받지 않고 휘갈긴 몇 개의 획을 써서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도로 통합된 기술(記述) 방식은 서예(書藝) 디자인, 특히 아라비아 어 알파벳을 쓰는 경우의 그것과 흡사했다. 그러나 그런 디자인은 숙달된 서예가에 의한 면밀한 사전 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 누구도 대화하는 속도에 맞춰 이토록 정교한 디자인을 자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농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식이다.

“자식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난 별로 자신이 없어. 한 번은 자식들을 기르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 본 적이 있지. ‘내가 자식을 여럿 낳는다고 가정해 봐. 만약 그 애들이 자라서, 인생에서 겪는 안 좋은 일들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야. 그랬더니 친구 왈, ‘만약 자랄 거라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농담이다.

게리와 나는 조그만 중국 음식점에 와 있었다. 캠프에 있기가 싫어 질 때 함께 자주 들르곤 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전체를 먹고 있었다. 돼지고기와 참기름 냄새가 잘 조화된 군만두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다.

나는 초간장에 군만두를 찍었다. “〈헵타포드 B〉 배우는 건 얼마나 진전됐어?” 나는 물었다.

게리는 비스듬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그는 자꾸 탄창을 피우며 내 시선을 피했다.

“포기한 것도 아니군, 안 그래? 요즘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거 아냐?”

게리는 실로 그럴듯하게 풀죽은 표정을 지었다. “난 언어에는 아예 소질이 없나 봐.” 그는 고백했다. “〈헵타포드 B〉를 배우다는 건 다른 언어를 습득한다기보다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나한테는 너무 이질적이야.”

“그걸 알면 헵타포드들과 물리학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일단 돌파구를 찾았으니까, 몇 가지 표현만 알면 토론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 고백하자면 실은 나도 수학 배우려는 걸 포기했거든.”

“그럼 피장파장인가?”

“피장파장이야.” 나는 차를 흘쩍였다. “하지만 페르마의 원리에 관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게 있어. 그 원리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 물리학 법칙처럼 들리지 않는다고나 할까.”

게리의 눈에 유머러스한 빛이 떠올랐다.

“당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 그는 젓가락으로 군만두를 반으로 갈랐다. “빛의 굴절을 언제나 인과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야. 광선이 수면에 도달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은 결과라는 식이지. 페르마의 원리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빛의 행동을 목표 지향적인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야. 마치 광선에 대한 계명(敕命)인 듯한 느낌일걸까. ‘네 목표로 갈 때는 도달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지어다’ 하는 식으로 말야.”

나는 이 말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계속해 봐.”

“그건 물리 철학의 오래된 의문이야. 페르마가 1600년대에 그걸 처음으로 법칙화한 이래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거지. 플랑크는 그것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쓰기까지 했어. 문제의 쟁점은, 물리 법칙의 통상적인 공식은 인과적인데 비해서, 페르마의 원리 같은 변분 원리는 합목적적(合目的的)이고, 거의 목적론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이야.”

“흐음, 그건 흥미로운 제기 방식인데. 조금 생각을 해 볼 테니 잠깐만 기다려 봐.” 나는 사인펜을 꺼내 종이 냅킨 위에 게리가 내 칠판에 그렸던 것과 똑같은 도식을 그렸다.

“좋아.” 나는 소리 내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그럼 이 광선의 목표는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하는 것이라고 해. 광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흐음, 의인화해서 확대해석해도 무방하다면, 빛은 일단 선택 가능한 경로들을 검토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일일이 계산해야 해.”

게리는 마지막 군만두를 접시에서 집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광선은 자신의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해. 목적지가 다르다면 가장 빠른 경로도 바뀔 테니까.”

게리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목적지가 없다면 ‘가장 빠른 경로’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지니까 말야. 또 해당 경로를 가로지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 중간에 무엇이 가로놓여 있는지, 이를테면 수면이 어디 있는지 하는 식의 정보도 필요해.”

나는 냅킨에 그려진 그림을 계속 응시했다.

“그리고 광선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말야. 맞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빛은 적당한 지점을 향해 출발한 다음 나중에 진로를 수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런 행위에서 야기된 경로는 가장 빠른 경로가 아니기 때문이지. 따라서 빛은 처음부터 모든 계산을 끝마쳐야 해.”

나는 속으로 곱씹었다. 광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선택하기도 전에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게리를 올려다본다. “내가 고민하던 것도 바로 그거였어.”

나는 네가 열네 살이었을 무렵을 기억해. 학교 리포트를 쓰던 너는 낙서투성이의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네 침실에서 나와.

“엄마, 양 진영 모두 이길 수 있을 때 쓰는 말이 뭐야?”

컴퓨터로 논문을 쓰던 나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지. “흠, 윈-윈

(win-win)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

“그런 걸 표현하는 수학 용어 비슷한 전문 용어가 있잖아. 아빠가 여기 와서 주식시장 얘기하던 거 생각 나? 그때 아빠가 그 말을 썼어.”

“흐으음, 들은 기억이 있긴 한데, 정확히 그때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알아내야 해. 사회 과목 리포트에 그 말을 쓰고 싶거든.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정보 검색을 할 수도 없어.”

“미안해. 나도 생각이 안 나. 아빠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 보지 그러니?”

네 표정에서 판단하건대, 그 정도로까지 노력할 생각은 없는 듯했지. 이 시점에서 너와 네 아버지 사이는 그리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대신 걸어서 물어 볼 수는 없을까? 하지만 내가 물어 봤다고는 하지 말아 줘.”

“내가 직접 걸러무나.”

너는 화를 내. “세상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진 다음부터는 숙제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이혼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단지 놀랄 따름이다.

“내가 도와줬잖아.”

“백만 년쯤 전에?”

이런 얘기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도 도와주고는 싶지만,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하겠니.”

이러면 너는 씩씩거리며 자기 침실로 돌아가겠지.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언어학자들을 상대로, 때로는 혼자서

〈헵타포드 B〉를 연습했다. 의미표시 언어를 읽는다는 새로운 경험에는 〈헵타포드 A〉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을 매료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글을 쓰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도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쓰는 문장들은 점점 더 모양이 좋아지고, 더 면밀해졌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더 매끄럽게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문자를 쓰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도(構圖)를 결정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획을 긋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내가 처음에 긋는 선들은 거의 언제나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의 명쾌한 해석에 들어맞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나는 헵타포드와 같은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헵타포드 B〉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 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에게 지금까지 사고(思考)란 보통 내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문 용어를 쓰자면 나의 사고는 음운적으로 코드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의 내적인 목소리는 보통 영어로 말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방학 때 나는 순전히 러시아 어로만 진행되는 집중 언어습득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나는 러시아 어로 생각하고, 꿈을 꾸기조차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발화(發話)된 러시아 어였다. 언어는 달라져도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사고란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말하는 과정이다.

비음운적(非音韻的)인 언어로 사고한다는 개념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켰다. 내 친구 중에는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청각 장애자인 사람이 있다. 미식 수화법을 쓰며 자란 그가 영어 대신 수화를 써서 생각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얘기를 그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수화로 코드화(化)된 사고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내적인 목소리 대신 내적인 손한 쌍을 써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지 궁금해하곤 했다.

<헵타포드 B>를 습득하면서 나는 그에 못지않게 이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나의 사고는 그림을 통해 코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낮에는 이따금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 빠져, 나의 사고가 내적인 목소리로 표현되는 대신, 유리창에 서리가 끼듯이 생겨나는 어의문자로 대체된 광경을 심안(心眼)으로 보곤 했다.

내가 이 언어를 점점 더 유창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어의문자들은 완전히 형성된 상태로 나타났고, 나는 복잡한 개념들까지 일거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 나의 사고 과정이 예전보다 더 빨라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앞을 향해 질주하는 대신, 나의 마음은 어의문자들의 기반을 이루는 대칭성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부유하고 있었다. 어의문자들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선 어떤 존재였다. 거의 만다라(曼陀羅)에 가깝다고나 할까. 자신도 모르게 명상 상태에 빠져 전제조건과 결론을 호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숙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각 명제들 사이의 관계에 고유한 방향성은 없었고,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사고의 맥락'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논리적 사고에 관여된 모든 요소는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 모두가 동일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헵타포드에 관련된 안전을 브리핑하는 일을 맡은 것은 국무성에서 파견된 호스너라는 외교관이었다. 우리는 화상 회의실에 앉아 그의 강연을 들었다. 우리 마이크는 꺼져 있었기 때문에 게리와 나는 호스너를 방해하지 않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강연이 계속되는 동안 게리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너무 자주 눈을 굴린 나머지 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이었다.

"이 먼 지구까지 온 데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호스너의 목소리는 실제보다 작게 들렸다. "지구

정복이 목적은 아닌 듯하니 천만다행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온 걸까요? 자원 답사자? 인류학자? 선교사?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만은 틀림없습니다. 아마 태양계에 대한 채굴권 일지도 모르겠군요. 혹은 우리들 자신에 관한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류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뭔가가 있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역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중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일단 그 정보를 획득한 후에는 무역 교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와 헵타포드와의 관계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익이 곧 우리의 손실을 의미하고, 또 그 역(逆)이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들과 헵타포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논제로섬(non-zero-sum) 게임이란 말야?" 게리는 짐짓 경악한 어조로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논제로섬 게임이야."

"뭐?"

자기 침실로 가던 너는 몸을 돌려 다시 내 쪽으로 와.

"양쪽 모두 이길 수 있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지. 방금 생각났어. 논제로섬 게임."

"맞아, 그거야!" 너는 그 단어를 노트북에 적어. "엄마, 고마워!"

"결국 머리에 떠오르는구나. 네 아빠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런

표현들이 좀 읊었던 건지도 모르겠어.”

“엄마라면 알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나를 잠깐 껴안아. 네 머리카락에서는 사과 향기가 풍기지. “엄마가 최고야.”

“루이즈?”

“응? 아, 미안.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예의 호스너 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가급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보려고 했어. 정부를 무시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사라져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야. 그래 주지는 않더군.”

게리의 의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호스너는 계속 주절거리고 있었다.

“여러분의 당면 과제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 보십시오. 헵타포드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징후는 없었습니까?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휴우. 그런 일들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당장 그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호스너 씨.”

“여기서 개탄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게리가 말했다.

“뭔가 질문이라도?”

호스너가 물었다.

포트 위스의 체경 캠프에서 온 언어학자 버그하트가 입을 열었다.

“헵타포드들에게 이미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

면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관찰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말하고, 또 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호스너가 대답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헵타포드들은 이따금 짧은 기간 동안 우리와의 대화를 중지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는 그것이 일종의 전술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우리 쪽에서 대화를 중지한다면 ——”

“저 친구가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든 깨워 줘.”

게리가 말했다.

“나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게리가 페르마의 원리에 관해 내게 처음으로 설명해 주었던 날, 그는 거의 모든 물리 법칙은 변분 원리로 기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리 법칙을 생각할 때 인류는 인과적 맥락에서 생각하는 편을 선호한다. 이것은 나도 이해할 수 있었다. 운동 에너지나 가속도처럼 인류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물리적 속성은 모두 고정된 시점에서 어떤 물체가 가지는 성질이다. 그리고 이런 성질은 순차적이고 인과적인 사건 해석으로 이어진다. 어떤 순간이 다음 순간을 낳고, 원인과 결과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용’이나 적분에 의해 정의되는 것들처럼 헵타포드들이 직관적이라고 간주하는 물리적 속성들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만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사건의 목적론적인 해석으로 이어진다. 사건을 일정 길이의 시간에 걸쳐 바라봄으로써 만족시켜야 할 조건, 최소화나 최대화라는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과 마지막의 상태들을 알아야 한다. 원인이 시작되기 전에 결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왜?” 너는 또 이렇게 묻지. 너는 세 살이야.

“왜냐하면 넌 이제 자야 하기 때문이야.”

나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너를 목욕시키고 잠옷을 입히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뒤로는 진전이 없는 상태야.

“하지만 난 안 졸려.”

너는 징징거리지. 너는 책장 앞에 서서 비디오를 볼 작정으로 테이프를 하나 꺼내려 하고 있어. 침실에 가지 않으려고 가장 최근에 네가 고안해 낸 양동전술이지.

“그건 문제가 안 돼. 넌 어차피 자야 해.”

“하지만 왜?”

“난 네 엄마이고, 그런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기 전에 차라리 누군가가 나를 쫓아 죽여 주면 좋을 텐데.

내가 너를 들어올려 한쪽 옆구리에 끼고 네 침대로 데려가는 동안 너는 계속 징징거리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나 자신의 고뇌에 관한 생각밖에는 없어. 내가 자라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치에 맞는 대답을 아이에게 해 주자, 내 아이를 지적이고 자기 생각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해 주자, 하고 거듭 맹세했던 어린 시절의 내 결심은 전부 어디로 갔는지. 난 내 어머니와 똑같은 존재가 되려 하고 있어.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에 저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길고 끔찍한 비탈길에서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어.

미래를 아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단지 미래를 추측하는 것

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실제로 아는 것이 가능할까?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시간 대칭적이고, 과거와 미래에 물리적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를 게리에게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사실이야”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대다수의 사람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근거로 내세워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보르헤스 풍의 우화적 이야기를 통해 반론을 전개해 보기로 하겠다. 과거와 미래에 걸친 모든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세월의 책』 앞에 서 있는 여자가 하나 있다고 치자. 원본을 더 작게 복사한 것까지는 하지만, 이 책은 여전히 거대하다. 한 손에 확대경을 든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 티슈처럼 얇은 책장을 넘긴다. 자신이 『세월의 책』의 책장을 넘기고 있는 것을 기록한 대목을 찾아낸 그녀는 다음 대목으로 넘어간다. 그곳에는 그 날 그녀가 나중에 하게 될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녀는 책에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주마인 ‘될 대로 되라’에 100달러를 걸고 스무 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정말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청개구리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탓에 그녀는 경마에 아예 돈을 걸지 않기로 결심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세월의 책』은 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는 어떤 사람이 실현 가능한 미래가 아닌 실제의 미래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는다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었다면 운명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의해 결국 그 운명에 따라 행동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겠지만, 어차피 그리스 신화의 예언은 모호하기로 악명이 높다. 이에 비해 『세월의 책』은 극히 명확하고, 그곳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그녀가 경주마에 돈을 걸도록 강요할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 결과 모순이 생겨난다. 『세월의 책』은 절대로 옳아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녀는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양립시킬 수 있을까?

양립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통상적인 대답이다. 『세월의 책』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모순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조금 관대한 입장을 취한다면 독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한 『세월의 책』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특별 컬렉션의 일부이고, 이것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자유意志의 존재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자유意志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의지란 의식(意識)의 본질적인 일부인 것이다.

아니, 정말로 그런 것일까? 미래를 안다는 경험이 사람을 바꿔 놓는다면? 이런 경험이 일종의 절박감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될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나는 일을 끝내고 퇴근하기 전에 게리의 사무실에 들렀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려고 해. 뭔가 먹으러 가지 않겠어?”

“그러지. 잠깐만 기다려 줘.”

게리는 컴퓨터를 끄고 몇몇 논문들을 끌어 모았다. 그리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 먹지 않겠어? 내가 요리할게.”

나는 의심스럽다는 투로 그를 바라보았다. “요리할 줄 알아?”

“한 가지밖에는 못해.” 게리는 시인했다. “하지만 그것만은 자신 있어.”

“그럼 그러지 뭐.”

“좋았어. 그럼 재료를 좀 사러 가야 하겠군.”

“그렇게까지 안 해도 ——”

“집으로 가는 길에 가게가 하나 있어. 1분도 안 걸릴 거야.”

우리는 각자의 차에 올라탔고, 나는 게리의 차 뒤를 따라갔다. 앞차가 느닷없이 방향을 틀어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그가 말한 가게는 미식가들을 위한 식료품점이었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급스러웠다. 스테인리스강의 선반 위에 진열된 고급 취사도구들 옆에 수입 식재가 든 길쭉한 유리 단지들이 늘어서 있다.

나는 신선한 바질, 토마토, 마늘, 링귀니 따위를 차례차례 사는 게리와 함께 가게를 돌아다녔다.

“바로 옆은 생선 가게야. 거기 가선 신선한 대합조개를 살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거 참 괜찮네.”

우리는 주방 도구 코너를 지나갔다. 나는 선반 한쪽을 무심코 보다가 — 후추 뿜는 기구, 마늘 으깨는 도구, 샐러드 집게 따위가 진열된 — 목제 샐러드볼 앞에서 멈춰 섰다.

세 살일 때 너는 부엌의 카운터에서 행주를 잡아당기다가 이 샐러드볼을 머리에 뒤집어쓰지. 나는 떨어지는 볼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해. 네 이마 위쪽이 볼 가장자리에 맞아서 결국 한 바늘 꿰매야 하지. 네 아버지와 나는 시저 샐러드 드레싱투성이가 되어 흐느끼는 너를 안고 응급실 앞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해.

나는 손을 뻗어 선반에서 샐러드볼을 집어들었다. 이 움직임에서 특별히 강요받은 듯한 느낌은 없었다. 그러는 대신 딸의 머리 위에 떨어지려는 볼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와 같은 절박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본능적으로 주저 없이 따라야 하는 느낌이다.

“이런 샐러드볼이 있으면 편리하겠네.”

게리는 볼을 보고는 찬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봐. 가던 길에 여기 들르기를 잘했지?”

“응.”

우리는 물건 값을 지불하기 위해 줄을 섰다.

‘The rabbit is ready to eat’ 라는 문장에 관해 생각해 보자. 여기서 ‘rabbit’ 을 ‘eat’ 의 목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저녁식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장이 된다. 그러나 ‘rabbit’ 을 ‘eat’ 의 주어로 본다면 이것은 암시, 이를테면 어린 소녀가 퓨리나 사(社)의 애완용 토끼 먹이 봉지를 열 작정임을 자기 어머니에게 알리는 경우에 어울리는 암시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완전히 상이한 두 개의 언술(言述)이다. 사실 한 가정 안에서 이 두 언술이 공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타당한 해석인 것이다. 이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오직 문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광선이 어떤 각도로 수면에 도달하고, 다른 각도로 수중을 나아가는 현상을 생각해 보자.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빛이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한다면, 인류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빛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한다면 당신은 헵타포드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해석이다.

물질 우주는 완벽하게 양의적(兩義的)인 문법을 가진 하나의 언어이다. 모든 물리적 사건은 두 가지의 완전히 상이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언술에 해당된다. 한 방식은 인과적이고, 다른 방식은 목적론적이다. 두 가지 모두 타당하고, 한쪽에서 아무리 많은 문맥을 동원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은 없다.

인류와 헵타포드들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자의식의 불꽃을 획득했을 때는 양 종족 모두 동일한 물질 세계를 지각했지만, 지각한 것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달랐다. 궁극적인 세계관의 상이함은 이런 차이가 낳은 결과였다. 인류가 순차적(順次的)인 의식 양태를 발달시킨 데에 비해, 헵타포드들은 동시적(同時的)인 의식 양태를 발달시켰다. 우리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경험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지각한다. 헵타포드들은 모든 사건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그 근원에 깔린 하나의 목적을 지각한다. 최소화, 최대화라는 목적을.

나는 너의 죽음에 관한 꿈을 되풀이해서 보고 있어. 그 꿈에서 암벽을 타고 있는 사람은 나야. 내가 그러한 광경을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그리고 너는 세 살배기 아기이고, 내가 등에 지고 있는 일종의 배낭 속에 들어 있지. 우리는 한숨 돌리며 쉴 수 있는 바위 선반에서 불과 몇 피트 아래까지 와 있지만, 너는 내가 그 선반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어. 너는 배낭에서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나는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물론 너는 내 말을 무시해. 네가 배낭 밖으로 나오면서 네 몸의 무게가 배낭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이윽고 네 왼쪽 발이 내 어깨를 딛지. 그 다음에는 오른쪽 발. 나는 너를 향해 고함을 지르지만, 암벽에서 손을 떼고 너를 움켜잡을 수는 없어. 네가 암벽을 타고 오르면서 네가 신은 운동화창의 물결 무늬가 보이고, 한쪽 운동화 아래에서 바위 파편이 뜰려 나가는 것이 보여. 너는 바로 내 옆에서 아래로 미끄러지지만 나는 근육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까마득한 아래쪽에 있는 너의 모습이 점점 조그맣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

그러자 느닷없이 나는 시체 안치소에 와 있어. 담당자가 네 얼굴에서 시트를 걷어 내자, 나는 네가 스물다섯 살이라는 것을 깨달아.

“괜찮아?”

나는 침대 위에 꼴꼴이 앉아 있었다. 벌떡 몸을 일으킨 탓에 게리를 깨웠던 것이다.

“괜찮아. 잠깐 놀랐을 뿐이야. 한순간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몰랐거든.”

게리는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번에는 당신 집에 가기로 하지.”

나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말했다.

“걱정 마. 난 여기도 좋아.”

우리는 침대에 누워 몸을 둥글게 오므린다. 내 등과 그의 가슴에 맞대고, 우리는 다시 잠에 빠져 들었다.

내가 세 살일 때 우리는 가파른 나선계단을 함께 올라가고 있고, 나는 너의 손을 평소보다 더 강하게 쥐고 있지. 그러자 너는 손을 빼면서 “나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려 들지 않아. 너는 자기 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나한테서 떨어지고, 나는 그 꿈을 머리에 떠올려. 너의 어린 시절 동안 우리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되풀이하게 돼. 너의 반항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네가 등반을 좋아하게 된 것은 너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을 정도야. 처음에는 놀이터의 정글집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 집 부근의 그린벨트의 나무 위, 등반 클럽의 인공 암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의 절벽에서.

나는 문장의 마지막 어근을 완성한 다음 분필을 내려놓았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등반이에 등을 대고 사무실의 철판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거대한 <헵타포드 B>의 문장을 관찰했다. 문장에는 복

잡한 구가 몇 개 포함되어 있었고, 나는 그것들 모두를 상당히 훌륭하게 통합시킬 수 있었다.

이런 문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헵타포드들이 왜 <헵타포드 B>와 같은 의미표시 문자 시스템을 발달시켰는지 이해가 된다. 동시적(同時的)인 의식 양태를 가진 종족에게는 그쪽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한 단어 뒤로 다음 단어가 순차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음성언어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반면 문자를 쓸 경우에는 한 페이지 위에서 모든 기호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문자를 음성표시라는 구속복으로 속박하고 음성언어와 같은 순차적 구조를 강요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은 애당초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의미표시 문자가 글이 쓰인 페이지를 2차원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형태소(形態素)를 하나씩 늘어놓는 대신, 한 페이지 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헵타포드 B>의 습득을 통해 동시적 의식 양태를 경험하게 된 나는 <헵타포드 A> 문법의 기반을 이루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순차적인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고 인식했던 것도, 이제는 순차적인 음성언어의 제약 안에서 유연해지려는 시도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 <헵타포드 A>를 더 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조차도 <헵타포드 B>에 비하면 빈약한 대체물에 불과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나더니 게리가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웨버 대령이 곧 올 거야.”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알았어.” 웨버는 플래퍼와 래즈베리와 대화 세션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나는 통역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기 싫어서 건달 수가 없었다.

게리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의자에서 나를 끌어 올리더니 키스한다.

나는 미소 지었다. “대령이 오기 전에 날 격려해 주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나 자신을 격려하고 싶어서.”

“당신은 애초부터 헵타포드들과 대화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 안 그래? 단지 날 침대로 유인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거야.”

“아. 완전히 투시당해 버렸구만.”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믿는 편이 나을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의 일을 기억해. 나는 새벽 두 시에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나와 너에게 젖을 먹여. 네가 있는 아기방에서는 기저귀 크림과 털컴 파우더와 방 구석의 기저귀 통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암모니아 냄새가 뒤섞인 ‘아기 냄새’가 나. 나는 아기 침대 위로 몸을 기울이고 앵앵거리는 네 몸을 들어올리고, 너를 안은 채로 흔들의자에 앉아 너를 달래지.

‘인펀트(infant; 幼兒)’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말할 줄 모른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너는 ‘난 괴로워’라는 말만은 완벽하게 말할 줄 알고, 쉬지도 않고 주저 없이 그렇게 말해. 그 주장에 대한 너의 헌신적인 태도에는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 일단 울기 시작하면 너는 분노의 권화(權化)가 되고, 전신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재미있는 건 네가 조용하게 쉬고 있을 때는 몸에서 빛을 발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사실이야. 만약 누군가가 그런 상태의 너를 보고 초상화를 그린다면, 나는 그 그림에 후광(後光)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하겠지. 그렇지만 불쾌함을 느낄 때 너는 큰 소리를 발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인 클랙슨이 되어 버리지. 그런 너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면 화재 경보기를 그리는 것만으로 족해.

그 단계의 네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 내가 너에게 직접 젖을 먹일 때를 제외하면 네 안에는 과거의 만족감에 관한 기억도, 미래의 충족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지 않아. 일단 젖을 빨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역전되고, 세상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느끼지 않게 되지. 네가 지각하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뿐이야. 너는 현재 시제(時制) 속에서만 살아. 여러 의미에서 실로 부러운 상태라고나 할까.

헵타포드들은 자유롭지 않지만 속박당한 것도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력한 자동인형인 것은 아니다. 헵타포드의 의식 양태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들의 행위가 역사상의 사건과 일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의 동기 또한 역사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창출해 내고, 연대기를 실현해 보이기 위해 행동한다.

자유는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순차적 의식이라는 맥락에서는 완벽한 현실이다. 동시적 의식의 맥락에서 보면 자유는 의미가 없지만, 강제 또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결국 맥락이 서로 다를 뿐이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타당하다거나 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착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유명한 그림을 닮았다고나 할까. 고개를 뒤쪽으로 돌린 우아한 젊은 여인으로도 보이고, 턱이 가슴에 묻힐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인, 울퉁불퉁한 코를 가진 노파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그림의 경우처럼,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양쪽 모두 동등하게 유효성을 가진다. 그러나 두 그림을 동시에 볼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안다는 것과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없다. 나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는 반대로 일단 내가 미래를 알면 나는 결코 그 미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행위를 포함해서 말이다.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미래에 관해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세월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VCR을 켜고 포트워스 체경에서 행해진 세션을 녹화한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었다. 통역을 맡은 버그하트를 통해서 외무성 측의 교섭 담당자가 그곳의 헵타포드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교섭 담당자는 애타주의의 개념을 전달하는 토대를 쌓을 작정으로 인류의 윤리적 통념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헵타포드들이 이 대화의 종국적인 결말에 관해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열성적으로 이 대화에 임했다.

만약 아직 진상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 광경을 묘사했다면, 이런 대답이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헵타포드들이 자신이 말하거나 들을 얘기를 이미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일부러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타당한 의문이다. 그러나 언어란 단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행위의 한 형태이기도 한 것이다. 화행(話行) 이론에 의하면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나 “나는 이 배에 명명하노라,” 혹은 “약속하겠어” 따위의 서술문들은 모두 수행문(遂行文)이다. 발화자가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말을 입 밖에 내서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 행위의 경우, 앞으로 어떤 말이 발해질지에 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들은 누구나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목사가 그런 말을 할 때까지 결혼 의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수행문적 언어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 등가(等價)인 것이다.

헵타포드의 경우 모든 언어는 수행문이다. 정보 전달을 위해 언어를 쓰는 대신, 그들은 현실화(現實化)를 위해 언어를 쓴다. 그렇다.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헵타포드들이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화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금발머리는 아빠곰의 죽을 먹으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금발머리가 싫어하는 양배추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웃음을 터뜨려. “아냐, 그 애긴 틀렸어!” 너는 나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고, 우리 무릎 위에는 얇으면서 가격만 비싼 하드커버 장정의 그림책이 놓여 있지.

나는 계속 읽어.

“금발머리는 엄마곰의 죽을 먹어 보았지만, 그 죽에는 역시 그녀가 싫어하는 시금치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책장을 손으로 누르고 나를 제지하지.

“원래대로 읽어 줘, 엄마!”

“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고 있는데.”

나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지.

“아냐. 엄마가 한 얘기는 진짜 얘기하고 달라.”

“별써 무슨 애긴지 알고 있는데 왜 나더러 읽어 달라고 하는 거야?”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웨버의 집무실은 이 사내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벌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냉방이 잘 되어 있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교환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하지만 무역은 아녜요.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식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지 사전에 통고하는 일 없이.”

웨버 대령의 미간에 조금 주름이 잡혔다.

“그렇다면 선물 교환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알고 있었다. “‘선물 증여’라는 식으로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번 거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 증여와 같은 연상작용을 헵타포드들에게도 불러일으킬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 웨버는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 잠시 뜸을 들였다. “—— 어떤 종류의 선물을 원하는지에 관해 그들에게 힌트를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이런 종류의 거래에서 그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그들에게 요청을 해도 좋으냐는 질문을 해 보았고, 그들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건지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느닷없이 ‘수행적(performative)’이라는 단어는 어형론(語形論)상으로 ‘언어운용(performance)’이란 단어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를 알면서 대화를 계속할 때의 느낌은 바로 이런 식이다. 연극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찬가지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경우 우리가 요구한 것을 그들이 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웨버 대령이 물었다. 그는 각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의 반응은 그에게 주어진 대사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걸 알 방도는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것 같지는 않군요. 그건 헵타포드들의 관행이 아니니까요.”

“만약 우리가 먼저 선물을 준다면, 우리 선물의 가치가 그들이 줄 선물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대령은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일생일대의 쇼에 대비해서 주의 깊게 리허설을 마친 후였다.

“아뇨.” 나는 말했다. “우리가 판단하는 한 교환되는 물품들의 가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으련만.”

게리가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웨버 대령이 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다. “물리학 토론에서 뭔가 새로운 점을 발견했습니까?” 대령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렇게 물었다.

“인류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캐냈냐는 뜻이라면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헵타포드의 행동은 평소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들에게 보여 주면, 그들은 그것에 조용하는 그들 자신의 해석을 보여 주지만, 자발적으로 뭔가를 보여 주거나,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우리들의 질문에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인류의 담화(discourse)라는 맥락에서 자발적이고 소통적인 발화로 보이는 것은 <헵타포드 B>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적(意識的)인 낭송이 되어 버린다.

웨버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았습니다. 국무성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선물 증여 의식 같은 걸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인과적인 해석과 목적론적인 해석이 양립하는 물리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모든 언어적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의 전달과 계획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그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령님.”

나는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은 내 말의 저변에 깔린 모호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개인적인 농담이라고나 할까. 나한테 그 의미를 묻지는 말아주시기를.

아무리 내가 <헵타포드 B>에 숙달했다고 해도, 나는 내가 진짜 헵타포드처럼 현실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 마음은 인간의 순차적 언어들의 주형(鑄型)에 맞춰서 만들어졌고, 외계인의 언어에 아무리 깊게 빠져 든다고 해도 그 형태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의 세계관은 인간과 헵타포드의 혼합물이었다.

<헵타포드 B>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전, 나의 기억은 극미(極微)의 담뱃불처럼 타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의식(意識)—이것은 순차적인 현재에 머물러 있다—이 만들어 내는 긴 담뱃재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헵타포드 B>를 습득한 다음에는 새로운 기억들이 거대한 블록처럼 빈 자리에 들어맞았고, 각 블록은 몇 년 동안의 기억에 해당되었다. 이것들은 순서대로 도착하거나 연속적으로 착륙하지는 않았지만, 곧 50년에 걸친 세월의 기억을 형성했다. 이것은 내가 <헵타포드 B>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언어를 숙지하고 있는 기간이며, 플래퍼, 래즈베리와 인터뷰로 시작해서 나의 죽음으로 끝난다.

보통 <헵타포드 B>는 단지 내 기억에만 영향을 끼친다. 나의 의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간선을 따라 기어 가듯이 전진하는 얇디얇은 담뱃불이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억의 재가 뒤편만 아니라 앞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따금 <헵타포드 B>가 진정한 우위를 점하면서 그

단편(斷片)을 훑듯 목격할 수 있을 때는, 나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경험한다. 나의 의식은 시간 밖에서 타다 남은 반 세기 길이의 잿불이다. 이런 경험을 할 때 나는 세월 전체를 동시에 지각한다. 이것은 나의 남은 생애와 너의 모든 생애를 포함하는 기간이다.

나는 <종점(終點)-창조 우리를-포함한 과정>을 의미하는 어의문자를 썼고, 이것은 ‘시작합시다’라는 뜻이었다. 래즈베리가 긍정을 의미하는 대답을 하자 슬라이드 쇼가 개시되었다. 헵타포드들이 준비한 제2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의문자와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비디오 화면에서도 같은 일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덟 번 있었던 ‘선물 교환식’ 중 내가 참가한 두 번째 교환식이었고,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체경이 있는 천막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포트워스에서 온 버그하트 뿐만 아니라 계리와 핵 물리학자 한 명, 여러 분야의 생물학자, 인류학자, 군 간부, 외교관들 등이었다. 다행히도 그들은 천막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해 놓았다. 우리는 체경에 떠오른 이미지들을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를 나중에 분석해서 헵타포드들의 ‘선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예정이었다. 우리들 자신의 ‘선물’은 라스코 동굴 벽화의 슬라이드 사진이었다.

우리들 모두가 헵타포드의 두 번째 화면 앞에 모여서 차례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의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다.

“잠정적인 평가는?”

웨버 대령이 물었다.

“단순한 재생은 아닙니다.”

버그하트가 말했다. 지난번 교환에서 헵타포드들은 우리가 예전에

그들에게 말했던 우리들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사건은 국무성을 격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식의 교환에서 거래되는 것들의 가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모르는 것이다. 헵타포드들이 우주선 엔진이나 저온 핵융합, 그 밖의 인류의 오랜 소망을 충족시켜 줄 기적과도 같은 기술을 우리에게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기화학처럼 보이는군.”

핵 물리학자가 사라지기 전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료 기술일지도 몰라.”

“이제서야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얻은 건지도 모르겠군.”

웨버 대령이 말했다.

“동물 사진들을 더 보고 싶어.” 나는 게리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입을 비죽 내밀었다. 게리는 미소 지으며 내 옆구리를 찔렀다. 나는 지난 두 번의 교류에서 그랬듯이 헵타포드들이 외계 생물학 강의를 또 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다. 그때 들은 얘기로 판단하건대 인류는 헵타포드들이 지금까지 조우한 그 어떤 종족들보다 헵타포드를 닮아 있었다. 생물학이 아니라면 헵타포드의 역사에 관한 강의를 한 번 더 해 줘도 좋았을 텐데. 역사 강의는 두서 없는 얘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흥미로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헵타포드가 우리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인류의 정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가 교환되는 중 나는 래즈베리를 관찰하며 변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주목하고 있었다. 평소 때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1분 후 헵타포드의 화면이 공백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1분 후에는 우리들 것도 그렇게 되었다. 게리와 과학자들 대다수는 헵타포드의 실연을 재생하고 있는 조그만 비디오 화면 주위에 몰려 있었다. 고체 물리학자를 부를 필요가 있다면서 의논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웨버 대령이 이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거기 두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를 가리켰고, 그리고는 버그하트를 가리켰다. “다음번 교환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 재생 화면 쪽으로 갔다.

“당장 그러죠.” 나는 이렇게 대답한 후 버그하트에게 물었다. “당신이 명예로운 주역 자리를 맡을래요? 아니면 내가 할까요?”

나는 버그하트가 나와 비슷할 정도로 〈헵타포드 B〉를 능통하게 구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기 있는 건 당신의 체경이잖아. 당신이 해 줘.”

나는 또다시 통신용 컴퓨터 앞에 앉았다. “대학원생이었을 때 자기가 장래에 육군의 통역으로 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그야 당연하지.” 버그하트가 대꾸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을 정도라니까.”

우리가 나누는 말은 모두 공공 장소에서 만난 두 명의 스파이가 결코 정체를 드러내는 일 없이 나누는 신중하고 무미건조한 대화를 연상케 했다.

나는 〈위치 교환-교류 대화 포함한-우리들〉에 투사적 상(相)*으로 변화를 준 어의문자를 썼다.

래즈베리가 대답을 썼다. 이것은 내가 미간을 찌푸리고, 버그하트가

aspect, 동사의 상(相). 러시아 어 등에서 동사의 뜻의 계속, 완료, 기동, 종지, 반복 등의 구분을 나타내는 문법 형식

“저건 뭘 의미하는 거지?”라고 묻는 신호였다. 버그하트의 타이밍은 완벽했다.

나는 설명을 요구하는 요청을 썼다. 래즈베리의 대답은 예전 것과 동일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이 방에서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이 수행적 행위에 바야흐로 막이 내리려 하고 있었다.

웨버 대령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외계인은 어디로 간 겁니까?”

“헵타포드들이 이제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모든 헵타포드가.”

“여기로 다시 불러와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 보는 겁니다.”

“흐음. 래즈베리가 삐삐를 차고 다닐 것 같지는 않군요.” 나는 말했다.

체경에 나타난 방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느닷없이 사라진 탓에 나는 한 순간이 후에야 그곳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깨달았다. 내 눈에 들어 온 것은 체경 반대편의 천막 내부였다. 체경 자체가 완전히 투명해졌던 것이다. 재생 화면을 에워싼 사람들의 대화가 끊겼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웨버 대령이 말했다.

게리는 체경 쪽으로 걸어가서 그 주위를 빙 돌아 반대편으로 갔다. 그는 한손을 체경 뒷면에 갖다 댔다. 체경에서 그의 손가락들이 닿은 부분에 희끄무레한 타원형들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아무래도 내가 판단하기로는,” 게리는 말했다. “우리는 방금 원격 물질 변환의 실연을 목격한 것 같군.”

마른 풀을 밟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천막문을 열고 병사 하나

가 들어왔다. 커다란 위키토키를 든 그는 달려온 탓인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대령님, 본부에서 연락이 ——”

웨버는 병사의 손에서 위키토키를 낚아챘다.

태어난 지 하루가 된 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를 기억해. 네 아버지는 요기를 하러 잠시 병원 식당으로 갔고, 나는 신생아용 침대에 누운 너의 몸 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지.

출산 직후라서 나는 여전히 꼭꼭 쥐어쥔 타월이 된 듯한 기분이야. 임신 중에는 그토록 거대하게 느껴지던 네가 얼마나 조그만지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야. 거기 침대에 누워 있는 너보다 훨씬 더 크고 건장한 아기라도 충분히 뱃속에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의 손과 발은 길고 가늘고, 아직 통통해지지 않았어. 얼굴은 여전히 새빨간게 오그라든 상태이고, 통통 부은 두 눈꺼풀은 꼭 닫혀 있어. 천사처럼 귀여워지기 전에 거쳐 가는, 도깨비를 닮은 단계라고나 할까.

나는 손가락으로 너의 배를 훑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운 살갗의 감촉에 놀라워하지. 이렇게 부드럽다면 설령 비단 옷을 입힌다 해도 거친 삼베 천에 스친 것처럼 상처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너는 꿈틀거리고, 몸을 비틀면서 양쪽 다리를 하나씩 내밀고, 나는 그것이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여러 번 했던 몸짓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 바로 저런 식이었군.

나는 어머니와 그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유대 관계의 증거를 두 눈으로 보고, 너야말로 내 뱃속에 있던 자식이라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고양감을 느껴. 설령 너의 모습을 직접 본 일이 없다고 해도, 나는 수많은 갓난아이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너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저 앤 아네요. 아, 재도 아닙니다. 잠깐, 저기 저 애예요.

예, 그 아이가 맞아요. 제 딸입니다.

최후의 '선물 교환'이 이루어진 날은 우리가 헵타포드를 본 마지막 날이었다. 전 세계에 분포한 그들의 체경은 일제히 투명해졌고, 그들의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떠나갔던 것이다. 나중에 분석해 본 결과, 체경은 석영(石英) 유리판에 불과하고, 화학적으로도 완전히 비활성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마지막 교환 세션에서 그들이 보낸 정보는 새로운 종류의 초전도체를 묘사하고 있었지만, 훗날이 되어 일본에서 갓 완료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류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헵타포드가 왜 떠났는지를 결국 알아내지 못했고, 무슨 이유에서 그들이 지구로 왔는지, 또 왜 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내지 못했다. 나 자신의 새로운 인식은 그런 종류의 지식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헵타포드의 행동을 순차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그 설명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나는 헵타포드들의 세계관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느끼고 싶어했다. 그랬다면 아마 나는 그들처럼 사상(事象)의 필연성의 바닷속에 완전히 몸을 담글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남은 일생 동안 얇은 물가에서만 철벽거리며 돌아다니는 대신에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체경 프로젝트에 참가한 다른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헵타포드의 언어들을 계속 학습하겠지만, 헵타포드들이 이곳에 있었을 때보다 더 앞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헵타포드들과의 공동 작업은 나의 인생을 바꿔 놓았어. 나는 너의 아버지를 만났고, 〈헵타포드 B〉를 배웠고, 나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너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지. 달빛에 물든 이 파티오에서. 훗날, 여러 해가 흐른 뒤에는 네 아버지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게 될 거야. 이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내게 남는 것은 헵타포드의 언어밖에는 없어. 그래서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어떤 세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

나는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경로를 골랐어. 하지만 지금 내가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은 환희의 극치일까, 아니면 고통의 극치일까? 내가 달성하는 것은 최소일까, 아니면 최대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물어.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미소 짓고 “응”이라고 대답하지. 나는 허리에 두른 그의 팔을 떼어 내고, 우리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 너를 가지기 위해.